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입체조형교육의 운영실태
-제주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in Jeju-do-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장 달 리

2008년 8월

석사학위논문

초등입체조형교육의 운영실태
-제주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in Jeju-do-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장 달 리

2008년 8월

초등입체조형교육의 운영실태
-제주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in Jeju-do-

지도교수 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장 달 리

2008 년 8월

초등입체조형교육의 운영실태
-제주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in Jeju-do-

지도교수 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장 달 리

2008 년 5월

국문 초록

초등입체교육의 운영실태

- 제주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장 달 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 전공

(지도교수 임 춘 배)

입체조형교육은 순수한 조형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 조형 과정을 통한 창의성 계발과 구조적인 균형을 구축하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미적 정서와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생활인으로서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정보화가 가속되어가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실체의 접촉과 그 감각에 의한 교육은 자연과 호흡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성을 위한 교육에서 더욱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수와 기능 위주의 현재 교육 제도 하에서는 미술교육이 눈앞에 드러내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더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조형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술 교육과 입체조형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현대사회에서의 미술교육은 창의적인 인간의 개발이라는 목적아래 더욱 중요시 되어지고 있으며, 입체조형교육의 자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술교육내용에 있어 입체조형교육과 평면조형교육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현대 미술가들이 하나의 매체나 장르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적절한 재료와 기법을 찾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 각 장르를 통합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장르로 구분할 수 없는 작품이 제작되며, 작업에 이용 가능한 모든 재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던 장르는 기본적인 구분인 평면과 입체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부터 평면과 입체표현을 균형있게 지도 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에 따라 평면과 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미술교과서를 살펴보면 평면과 입체표현의 균형있는 활동의 제시와 더불어 비사실적인 표현작품을 보강하여 사실적 표현과 비사실적 표현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서 미술과 연수 기회의 확대와 실효성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교사들이 입체조형수업의 실기기능을 어려워하고, 그에 대한 연수기회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다.

다양한 선행연구물들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술교과서는 아직도 입체조형단원과 평면조형단원의 수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고 있다. 현대미술에서는 재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다양한 재료의 차이를 느끼고 만져보는 과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입체조형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대상을 만져보고 다뤄볼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실을 열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공간으로 미술교육이 나갈 수 있어야한다. 지역사회 내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는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술교과 전담교사의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설과 교구가 갖추어진 교과 전담실(미술실)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박소영, 2004). 물리적인 환경만이 미술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전문적인 지도와 보다 활동에 편리하고 재료와 공구, 참고작품의 보관과 관리, 사용이 용이한 공간을 확보한다면 미술교육은 좀더 활기를 떨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3
II. 아동미술의 이론적 배경	5
1. 아동미술의 이해	5
2. 아동미술의 특징	6
3. 아동미술 교육의 필요성	8
4. 미술교사의 자질	11
5.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12
6. 미술교육의 전망	13
III. 입체조형의 이론적 배경	15
1. 입체조형	15
2. 입체조형교육	23
IV. 초등학교 입체조형교육의 내용	31
1.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	31
2.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의 특징	33
3. 초등학교 입체조형교육의 내용	36
V. 초등학교 입체조형교육의 실태	42
1. 조사 방법 및 대상	42
2. 조사결과 분석	44
3. 분석결과	70
IV. 결론 및 제언	74
1. 결론	74
2. 제언	77
참고문헌	80
ABSTRACT	83
부 록	86

표 목차

<표Ⅲ- 1> 아동 입체조형발달의 특징	22
<표Ⅳ-1>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미술’의 필수학습요소와 내용	32
<표Ⅳ-2> 교과서 발행에 따른 국가별 분석표	34
<표Ⅳ-3> 각국의 교과서 사용제	35
<표Ⅳ-4> 두 나라 교과서에 나타난 입체 표현재료와 용구	37
<표Ⅳ-5> 두 나라 교과서의 표현재료분포비교	38
<표Ⅳ-6> 두 나라 교과서 학생작품의 표현 방법별 비교	39
<표Ⅳ-7> 두 나라 교과서 학생작품의 표현 방법별 비교	39
<표Ⅴ-1> 설문지 개발 과정	42
<표Ⅴ-2> 설문지의 내용	43
<표Ⅴ-3> 미술과목을 가르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	46
<표Ⅴ-4> 미술과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	47
<표Ⅴ-5> 미술과 영역별 중요도	48
<표Ⅴ-6> 실기기법의 사전경험이 필요한 영역	49
<표Ⅴ-7> 표현영역중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영역	50
<표Ⅴ-8> 미술교과의 공개수업 여부	51
<표Ⅴ-9> 미술과 공개 이유	51
<표Ⅴ-10> 공개 미술수업의 주제영역	52
<표Ⅴ-11> 미술과 공개수업을 꺼리는 이유	54
<표Ⅴ-12> 입체조형 교수학습모형 N(%)	56
<표Ⅴ-13> 입체조형시 활용되는 참고작품	57
<표Ⅴ-14> 입체조형 실기지도의 난이도	58
<표Ⅴ-16> 입체조형 실기활동이 어렵지 않은 이유	59
<표Ⅴ-17> 입체조형 수업시 선경험의 도움정도	61
<표Ⅴ-18> 입체조형 수업에 필요한 경험의 습득 경로	62
<표Ⅴ-20> 입체조형관련 감상수업운영방법	64
<표Ⅴ-21> 입체표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선결조건	65
<표Ⅴ-24> 미술교과전담교사의 필요성	68
<표Ⅴ-25> 미술전담교사의 불필요성	69
<표Ⅴ-26> 미술수업의 효과적 방안	70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흔히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전 산업화 사회와는 다른, 실용적 기능보다는 정보적기능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이다.

현 세기는 지능이 뛰어난 인간, 기술이 있는 인간보다는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 감성이 뛰어난 인간의 능력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읽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 있는 인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어적으로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이 점점 더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이 중요하고 필요하게 되었다.

물질이 우선시되고, 대중 속에서의 인간의 외로움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고 생활하는 인간적이고 인간다운 전인적인 존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인문과학, 자연과학에서는 자연이나 인간의 문제를 문자나 숫자에 의한 개념적 이해나 접근을 시도하는 데 비해 조형교육을 중심으로 한 미술교육은 시각적, 촉각적 경험에 의하여 구체적 물질로 그것을 표현하게 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은 개개인들의 개성적인 느낌보다는 그들을 정보와 기호, 체계로서 이해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의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하여 그 이전 산업사회에서 느끼던 소속감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느낌을 잃게 하였다. 이러한 산업과 사회의 발달, 학문의 발달 속에서 잃었던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을 표현하게 하는 조형교육은 개념과 추상의 온실이 아닌 생생한 현실 세계와 교감하는 질적 사고(quality thinking)를 하게 한다. 또한 표현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적 체험이 형상으로 환원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경험을 전이시킨다 할 수 있다.

미술의 교육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갖고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늘고 있다. 현대 미술은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표현 방법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작업에 이용가능한 모든 재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조형교육은 인간교육일 뿐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손과 눈의 협응력에 크게 기여하며 좌뇌와 우뇌의 균형 있는 발달을 가져다준다. 또한 조형교육은 공간과 사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우리가 환경을 새롭게 보는 방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미지화 기호화 되어가는 지식사회 속에서 물질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만져볼 수 있는 교육적 기회는 단순한 ‘발달적’, ‘교육적’ 측면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감각의 카타르시스적 효과도 제공한다.

게다가 21세기 현대미술은 점점 더 장르와 재료의 한계를 두지 않는 반면 대중의 미술에 대한 감각은 19세기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은 현대 미술에 있어서 소재의 선택과 활용, 표현방법에 빠른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대미술은 단순히 평면적인 회화의 세계로만은 이해할 수 없는 입체적이고 조형적인 형태의 것이 되어 조형원리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산업사회는 인간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정보화 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사람들은 실제적인 감각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에 조형교육은 직접적으로 느끼고 만져보는 과정을 통하여 감성의 안정과 감각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하며 생활로 침투해온 미술과 그 적용을 맘껏 맛봐야 할 것이다.

미술교육은 미술의 본질과 교육의 본질이 만나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정·의가 조화된 인간상 추구하는 우리의 교육에서 미술교육은 미술 그 자체의 창작과 감상 그리고 기술을 가르치는 협의의 행위가 아닌 예술적 정신이나 기법이 활용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포괄하는 것으로 미적 체험을 통한 인간교육을 의미하게 된다.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미적 체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발현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있는 예술가적 감성을 계발하고 품성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 할 것이다. 미술교육은 일차적으로 인간교육이

고,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역시 '전인교육'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그 목표가 될 것이다. 미술교육은 자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며, 개성 있는 자아표현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미술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며 다른 세계를 접할 수 있다. 미술교육은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인문, 과학 교육의 중요함과 더불어 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술교육에서 차지하는 입체 조형 교육의 중요성 역시 이전에 비해 더욱 중요시 되어 가고 있다.

조형 활동은 아동이 놀이처럼 느끼며 좋아하는 흥미도가 높은 작업이다. 또한 미적 안목의 바탕이 되는 입체 조형원리의 지도는 입체 조형원리에 대한 지식을 주입시키는 이론 전달식 방법이 아닌 체계적인 지도 과정과 직접적인 경험, 충분한 참고자료, 어린이들의 표현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입체 조형 활동은 머리로 생각하는 2차원적인 활동이 아닌 3차원적인 공간에 만들어지고 시간과 감상 각도에 따라서 또다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다차원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형교육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이 나날이 커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에서 차지하는 입체조형교육은 단순한 찰흙 공작으로만 대체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입체조형교육은 실제적인 감각과 재료에 대한 접촉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나 일선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채 컴퓨터 화면과 교과서의 그림 속에서 입체조형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선 교사들은 그 재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미적 안목의 바탕이 되는 입체 조형원리의 지도는 입체 조형원리에 대한 지식을 주입시키는 이론 전달식 방법이 아닌 체계적인 지도 과정과 직접적인 경험, 충분한 참고자료, 어린이들의 표현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윤지연, 2003, p.1)

또한 일선에서 교사들이 미술교육의 한계점과 조형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연수를 받는 등 개개인의 노력에만 의지하고 있는 조형교육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가. 연구내용

본 연구를 위한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조형교육의 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제주도내 초등학교에서 미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교과와 입체조형교육활동에 있어 일선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제고하면서 현대 사회에 더욱 중요시 되는 미술교육의 측면을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조형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려고 한다. 교육과정이 실제로 구현되는 일선 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들의 설문조사와 그 내용 분석을 통해 조형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조형 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더 나은 조형교육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 내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 논문과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제주도내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문헌, 자료 수집·분석

이론적 접근에 있어 선행 연구물과 각종 관련 참고문헌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조소의 내용체계, 아동의 입체표현 발달 단계, 조소교육의 의의에 대한 지식 등 기초 연구를 하였다.

2) 제주도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라 연구자가 이론 탐색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반적인 초등학교 미술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학년과 담임여부에 관계 없이 전 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제주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타 지역이나 초등교사의 일반적인 추이로 해석할 수 없다.

Ⅱ. 아동미술의 이론적 배경

1. 아동미술의 이해

아이가 태어나서 손에 무언가를 쥐고 몸을 가눌 수 있게 되는 시기-만 1세를 전후한 시기-가 되면 손에 도구를 가지고 흔적을 남기려고 한다. 이 시도는 뭔가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기보다는 근육 움직임의 일종이다. 처음에는 주변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지거나 끄적거리거나 마구 그리게 된다. 그러다가 이름을 붙이게 되고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하며 나름대로 도식을 발달시킨다.

또한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시작할 나이-만 1세후반에서 2세 즈음-가 되면 혼자서도 흙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찾아내어 굽고 주물거리며 점차 그러한 움직임속에서 구체적인 물체를 만들고 만들어진 물체를 놀이에 참여시키기도 한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발달의 한 단계로 보아지는 이러한 단계와 활동을 미술활동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저 발달의 한 양태이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미술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의 이런 활동들도 ‘미술’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논의는 이미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에 아동미술이라는 장르를 확립하며 종결되어졌다.

아동미술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아이들의 작품 속에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생각한 것, 느낀 것이 모두 축적되어 나타나 있는 ‘삶의 표현’이기도 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

과 희망 욕구가 표현되어 있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것은 성인세계에 대한 모방이나 답습이 아니며, 성인의 표현과도 차이가 있다(유덕진, 정태진, 1996, p.33).

아동미술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며, 아동으로서의 리얼리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 미술이란 미술적 표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세계의 투사이자 감성적 신진대사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성격과 성장 발달, 그리고 생명력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깨닫기 시작할 무렵부터 아동 미술에 대한 이해는 성인의 것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아동미술’개념의 시작과 함께 대두되었고, 이것은 아동의 상상력에 중점을 두어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하여 아동미술의 가치와 예술적 조형적 효과를 실증하는 방향으로 발달되어 많은 아동미술에 대한 이론과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2. 아동미술의 특징

아동 미술은 그들의 성장의 반영이며 개성, 정서, 상상의 산물이다. 이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방향에서 그들의 발달단계와 더불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특징 때문이라 할 것이다.

아동의 미술표현능력의 발달이 과연 연속적인지 비연속적인지, 자연발생적인지 교육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과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학습자가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도 성장과 함께 자연적으로 인지구조를 발달시킨다는 관점, 훈련에 의해 인지구조를 발달시킨다는 관점, 학습자들의 학습은 연령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달된다는 관점, 학습자의 학습속도는 서로 다르다는 관점 등에 따라 미술표현능력과 미술이해능력의 발달단계는 다르게 설명된다(김성숙외8, 2007).

비록 연구자들의 관점 차이에 따라 표현능력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기준과 단계별 명칭은 다르지만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과 함께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 학자들의 평면표현 발달과 입체표현, 미술이해능력의 발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미술의 일반적인 특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규선 외5명, 2001).

첫째, 아동미술은 일정한 발달과정을 거친다.

발달과정에 대한 기준은 각 학자마다 다르며 발달단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어린아이들의 신체적·인지적 발달과정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미술적 능력의 발달 역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화에서 상징으로 다시 사실로 발달하는 과정이며, 미분화에서 분화적 표현으로, 대상과 거리가 먼 비례와 색채에서 대상과 가까운 비례와 색채 등으로의 발달 순서를 갖고 있다.

둘째, 미술을 통해 자신의 전체를 표현하고 반영한다.

모든 활동은 자신의 표현이다. 이는 어린이들에 국한지어질 수 없는 내용으로 기성작가들 역시 자신의 생각과 환경 등에 관련이 없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역으로 어린이들 역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주물거리는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발달 상태와 생각, 생활환경과 정서, 교육정도와 앎을 표현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게 되므로 어린이 자신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인간의 모든 표현은 자기의 경험 세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어린이들 역시 그러해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대상이나 부분은 크기, 색채, 형태 등으로 과장하고 자신과 관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대상은 생략, 무시, 축소한다. 아직 자신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단계의 객관적인 관점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관적인 관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여부와 관련여부에 따라 작품에서 차지하는 영역과 표현이 결정된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미술에서는 자기중심적 표현이 매우 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넷째, 어린이 미술에서 복잡성의 정도는 성숙함에 따라 증가한다.

앞서 나열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의 미술작품 속에는 자신의 경험과 얹어 그대로 녹아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더욱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작품 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어린이들의 특성은 신체적인 성숙도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인지적·감성적 성숙함에 의해 더욱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법의 발달에 따라 어린이는 보다 넓게 특성을 배열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미술작품에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3. 아동미술 교육의 필요성

아동의 미적 발달은 스스로의 창조적 표현과 제작활동을 통해 자연적으로 습득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가장 널리 소개된 로웬펠드(Lowenfeld)의 미술표현 발달단계는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기초로 한 자연발생적인 상징체계의 발달이론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미술표현능력이 발달된다는 가정 아래 평균적인 현상을 근거로 한 이론으로서 교육과 문화가 아동 미술표현 발달에 미친 영향은 고려되지 않은 이론이다.

그러나 미술 학습 활동에서 실질적인 제작활동만 강조된다면 미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와 평가 능력이 습득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아이스너(Eisner)에 따르면 미술적 능력은 자연적으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능력이라는 것이다. 성숙과 함께 미술표현능력이 자연적으로 발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실적인 재현능력만을 기준으로 표현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그는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뿐만 아니라 미술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곧 미술에서는 미술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적 안목과 조형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은 재능이나 본능에 의한 능력향상보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수활동에 의해 미술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은 아동의 생각이나 느낌을 조형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미술작품은 인간의 몸과 정신의 총체적·조화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신경생리학은 감각 경험이 유발하는 ‘대뇌세포들 사이의 전기활동이 대뇌의 생리적 구조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즉, 아동이 생후에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대뇌구조가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대뇌신경세포는 출생 시 약 1,000억 개 정도지만, 생후 ‘감각적 경험’이 촉발하는 전기활동에 의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천문학적 숫자로 폭발적 증식을 하는데, ‘신경연접 중 쓰이는 것은 강화되고 안 쓰이는 것은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당하고 말소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의 감각 경험 여하에 따라 대뇌의 생리적 구조, 하드웨어 자체가 바뀌므로, 초·중등미술교육에서 다양한 감각 경험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동의 감정 여하는 그들의 지적인 작용에 크게 영향을 주며, 한 인간의 감각능력은 모두 생득적인 것이기보다는 훈련에 의해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로는 학교교육에서 전인교육이란 아동의 신체에 다중감각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범모, 2002).

일반적으로 미술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하나는 미술교육을 사회적 요구와 목표의 달성을 돕는 교육적 수단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주의 입장으로, 미술활동을 통한 감성의 개발이나 창의성 개발 등의 미술교육이 이에 속한다. 또 다른 하나는 미술 자체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미술을 위한 미술 교육으로 본질주의 입장이다(임정기 외, 2006). 우리나라 학교미술교육의 경우에는 보통 전자의 입장이 강조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형성이며 이를 위하여 교과가 설정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교 교육이 이루어진다. 전인교육은 논리적이고 지적인 기능만의 습득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지적인 기능학습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교육목표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전인적인 인간’을 기를 수도 없다. 예술은 우리 생활에서 분리해 낼 수 없는 감정의 소산이며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되어 왔다.

특히 더욱 더 정보화되어지고, 미디어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과학시대에 대처하여 더욱 예술교육과 특히 미술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즉 지적인 교육과 사이버세계와의 접촉만으로 구성되어 가는 21세기의 인간교육에서 꼭 필

요한 감수성 체험에 의한 인식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인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최정호, 1999, p.3).

우리나라에서의 미술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교과와 유사한 견지에서 미술이라는 교과를 통하여 인간 형성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력,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 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교육인적자원부, 2007)에 미술교육의 목적이 있다.

엘리트 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과 보통 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동 미술교육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감각과 능력을 끄집어내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보통 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은 미술의 창조과정과 활동 자체를 인간 형성의 과정과 동일시하고 나아가서 미술의 제반원리를 교육의 원리로 삼는다. 또한 미적 감각과 가치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미술 경험에서 어린이의 인격적 발달에 유익한 본질을 선택하여 미술 지도의 내용과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교육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관적 표현을 통하여 조형의 세계로 창조, 발전시키는 예술의 한 영역이며, 창작과 감상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계발하며,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아동미술교육은 그 미술교육의 의의를 바탕으로 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아동의 작품세계와 어른의 작품세계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는 자세로는 이뤄질 수 없다. 그들의 표현은 미분화되고 유치한 상태라 할 지라도 발전을 전제로 한 독창적인 자기만의 표현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어린이의 조형 표현 발달단계와 심리적 관점에서 내면적 심상이나 외면적 기능표현의 지도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을 운택하고 풍부하게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넓혀 나가도록 하는데 아동미술교육의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김삼량, 1998, p.14).

결국 미술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주는 전인교육으로 미적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내적 잠재력을 육성시켜 미적 인간, 즉 조화로운 인격을 가진 사회인이 되도록 하여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 참여하여 사회문화를 개선 창조할 수 있는 사회적,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의 육성에 있다(유순아, 2000, p.7).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화로운 인격 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미술교사의 자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 아무리 교육적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교사의 지도능력이 강조되고 있다(권상구, 2001, p.87).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관련된 모든 환경들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

결국 미술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미술내용을 매개로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황규호, 2005).

로웬필드는, 교사의 역할은 아동이 새로운 사고를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의 내부 뿐 아니라 외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아동이 그림을 아름답게 그릴 뿐 아니라 선과 형태 및 색채가 어떻게 물체를 만드는가를 알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보된 미술교사는 아동이 작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미술이 아동의 자연스러운 본연의 창의력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또, 아동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순수한 자기 생각을 나타내게 하여야 한다.

미술은 일반적인 하나의 가치보다는 아동의 다양한 개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길러주는 교과이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해야 하는 시각적 활동의 교과이다. 이런 미술의 특수성 때문에 교사가 독단적인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때문에 미술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지도성은 물론 그 바탕 위에 미술교육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지도가 요구된다(황규호, 2005).

5.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황

갑오경장 이후 현대적 의미의 미술교육이 실시된 지 백 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났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미술교육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군사쿠데타 등 숱한 정치·사회적 변동을 겪는 동안 굴절된 역사 속에서 서구 문물의 무조건적인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물론 참다운 우리 미술교육의 역사는 지난 백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속했었다고 볼 수 있다. 정규 학교 등 제도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 속에서 어우러진 잠재된 미술문화로서의 미술교육이었다. 이러한 잠재된 미술교육 형태의 현상으로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미술교육은 제도적 측면에서 나라에서 필요한 특정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도화서 내의 미술교육 활동과 성균관이나 서당 등 학교 교육기관에서의 습자 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 미술교육의 모체가 된다 할 수 있다(임정기 외 2006, p.87).

그러나 여기서는 현대적 의미의 미술교육의 역사만 개략하여 보기로 한다.

일제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술교육계는 자주적으로 미술교육을 전개할 만한 안목과 역량을 가지 못한 상태였다. 광복 후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군정에 의하여 준비되고 계획되었고, 교수요목기의 우리나라 교육은 한 마디로 새 교육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교육운동은 1960년대 창조주의 미술교육이 도입되면서 그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진보주의 교육과 새 교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 새로운 미술교육을 수행할 만한 교사의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아동중심’, ‘자유표현’, ‘개성적 표현’, ‘창조적 표현’, ‘생활과 경험 중심’ 등의 용어들에 대한 개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미술 교육은 혼미 상태에 빠져 방임주의로 흘렀다(박휘락, 1995).

그 이후 미술이 중심인 학문중심 미술 교육에서는 미술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교육 방법의 과학화,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강조하지만 지나친 지식 중심으로 인

하여 다시금 교육에서 아동이 소외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서구의 이론들을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이제는 각 이론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의 문화와 현실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내는 연구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교육과정은 국가 사회의 요구와 학문과 기술의 발전, 미술 자체의 변화, 교육의 내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모색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로 올라감에 따라 수업시수가 줄어들면서 부분 개정된 7차의 시안에서도 더욱 위축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미술 교과가 모든 교과들의 기본 교과이며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인성교육의 기본 교과라는 인식을 끝내 표출 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현대 미술교육의 동향은 미술활동이 단순한 작품 제작의 즐거움의 추구에 그치지 않고 미술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세련되고 안목 있게 미술문화를 이해하는 교양인으로 양성하여 다양한 시각적 현대정보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올바른 미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미술과 교육은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기본 정신에 기초하여 다양하면서도 현장에 맞게 창의적인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미술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실제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대부분 실기에만 중점을 둔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조형교육보다는 보다 손쉽게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평면조형활동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교사들의 새로운 미술 이론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술사 및 미학, 미술비평 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한 영역에만 치중한 미술표현의 지도보다 미술의 이론과 표현영역을 경험함으로써 다양하고 균형잡힌 종합적 미술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김대열, 2001, p.89-90).

6. 미술교육의 전망

개성, 자유, 독창성이라는 모더니스트의 근본이념은 모던 시기동안 교양 교육에

서 강조된 최고의 가치들이었다. 따라서 개인주의의 발달과 자아의 동기유발은 이 시기 교육계가 반응해야 할 급선무의 과제였다. 19세기말부터 시작된 모더니즘의 인식구조는 계급적이며 발전적인 나선형 형태로 주창되었다. 이를 이론적 근거로 내세우며, 학교 교과와 구조발전과 체계화가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표현주의자 미술이론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심리학적 유의성 또는 순수한 미적 쾌락을 위해 미술 실기에 그 중요성을 부가시켰다. 표현주의 미술교육은 19세기 서부 유럽의 낭만주의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모더니스트 미학을 근거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표현주의 미술교육에서는 모더니스트의 미의 가치를 좇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학생들 작품을 평가하는 데에도 배타적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치책으로 대표되는 이시기의 미술교육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성숙하게’하는 미술 교육이 되었다. 미술과 교육의 양면에서 아동의 자유표현을 통해 혁신적인 아동 미술지도의 새 지평을 열어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 역할의 소극화, 표현활동의 강조, 지나친 과정중심의 수업형태 등의 비판과 미술교육 과정이 다소 관념적·이상적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형식주의는 학교 수업에서 디자인의 요소와 법칙을 가르치는 교수법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우하우스 교수법을 통해 확고한 기반을 굳혔다.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는 학교미술에서도 순수미술과 대중미술을 뚜렷하게 구분시키며 전자인 순수미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표현이론은 학생들에게 미술작품의 비평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두게 하는 데 실패하였고, 형식주의자의 접근 역시 작품을 배경적으로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술이 문화적 체계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학생들의 비평능력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해체의 과정이 감상자의 비평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창되어, 통합 교육과정이 장려된다. 학교 미술의 목적이 학생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미술 작품이 이 세계를 은유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미술은 이러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교과와 달

리, 미술에서는 다양한 연령의 학생들이 미술 표현 혹은 미술작품에 대한 해석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세계를 이해하는 기회를 보다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미술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미술교육계에서는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서 내리는 미술의 정의와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며 한 사회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어떻게 현대미술이 타문화의 이념과 가치를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입체조형의 이론적 배경

1. 입체조형

가. 입체조형의 이해

입체조형이란 3차원의 재료를 표현 매체로 활용하여 공간 속에 표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소와 공예, 입체 디자인, 건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입체조형으로서 조소(modeling and carving)는 조각의 전통적인 방법인 소조와 조각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공간의 점유, 들어감과 나옴, 가득 참과 빔에 의한 구성, 그리고 대비, 지속적인 상호간의 긴장, 균형 등이 특징이다. 또한 다양한 재료와 기법에 의한 조형적 구성의 효과에 따라 무한한 변화와 깊은 내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체적 변화에 따라 공간적 효과와 더불어 생명감이나 동세 시간성을 느낄 수 있다(이규선외, 1994, pp.228-289) 입체 표현은 공간의 설계나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단지 면적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간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입체표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가까운 3차원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있으며, 공간에서 형태를 창조하는 문제와 재료와 과정을 아이디어에 따라 결합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끄는 일이다. 3차원적 형태를 사용하여 물체를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촉감이나 중량감과 같은 감각을 동원하게 되며 따라서 조형 물체의 입체성과 그 표현, 나아가서는 이와 같은 개념 형성을 위해서는 물체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있어

야 한다(노부자, 1999).

또한 입체표현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재료의 구성 효과에 따라 무한한 변화와 깊은 내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체적 변화에 따라 공간적 효과와 더불어 생명감이나 동세, 시간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의 입체조형으로서의 조소는 이미 전통적인 개념의 조각과 소조의 개념을 넘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입체물에 대한 개념이 되었다. 현대 조각은 그리스 이후의 전통적인 조각과 그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넓은 의미에서 그 방법적 개념이 다양하게 변용, 적용되고 있다. 재질이 다른 재료들이나 소조와 조각기법의 혼용, 용접기술에 의한 금속의 조소기법 처리, 회화에서 입체의 도입, 건축 예술에서 콘크리트 몰탈기법에 의한 조형성 추구, 환경에 직접 참여하는 예술 행위 등이 바로 그 예이다(이창림, 2002, p.58).

입체조형을 초등미술교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순수 예술에서는 조소와 디자인, 공예를 구분하는 경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주체의 차이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초등미술교육에서 어린이들은 조소로 표현하면서도 놀잇감 등의 목적을 배제하지 않으며, 꾸미기나 만들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 등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나. 입체조형의 특성

1) 형태적 특성

미술 표현이란 인간이 외계를 극복해 나가는 전면적인 노력으로서, 인간의 어떤 한 면만의 반영이 아니고, 인간 전체의 반영이다. 인간의 지각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육체의 3차원적 형상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였으며, 학습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획득되는 것임을 보여준다(허버트 리드, 2001, p.58).

입체 표현의 또 다른 영역인 공예나 입체 디자인, 건축 등도 그 구체적인 형태에 의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발전해 왔다. 입체적인 사물을 만드는 것은 연장을 사용함으로써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등 인간 생활의 진보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제르맹 바쟁, 1994).

현대에 이르러 입체 표현의 이러한 형상성은 인체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제 3의 형태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예술 분야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현대 입체 표현의

특징은 그 재료와 표현 기법 및 주제의 다양성에 있어 한계를 설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인류 문명의 초기에 건축에 종속된 형태로 발생하였다가 후에 독자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 온 입체 예술은 오늘날 환경 미술에서처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형상을 통해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켜 바람직한 인간의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자연 환경과 조각 예술의 결합은 인간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유성웅, 1993, pp.760-765).

따라서, 아동에게 있어 입체조형은 인간에게 있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활동, 특히 입체적인 사물을 만드는 인간의 본성적인 활동인 동시에 자신의 표현이며 미적 발상의 표현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의미가 있다.

2) 입체적 특성

입체조형의 특성은 무엇보다 실제의 시계와 같은 3차원이라는 것이다. 조형매체가 3차원적이므로 표현 결과는 모두 양감 있는 형태를 갖는다. 평면표현에서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으로 표현하는 데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서울교대미술교육연구회, 1994, p.288).

또한 입체조형에서는 회화가 평면에 입체성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대상이나 생각을 입체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입체성을 구성하는 감각기초에는 시각, 운동감각, 촉각이 첨가된다. 입체작품은 전후좌우상하로 눈의 초점을 이동시켜가며 감상하게 되므로 차원의 변화를 시각적, 공간적, 운동감각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입체조형 활동 과정은 공간과 양의 상호 관계성과 구조를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개성적인 형태를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활동을 할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품의 주위를 돌거나 앞뒤로 시점을 옮겨가며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만져보면서 제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간적 특성

입체작품은 평면작품과는 달리 실제로 작품자체가 지니는 실재적 공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작품 주위에 있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 입체조형에서 공간을 중심으로 보면 이 실의 공간과 허의 공간은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실체의 양이 차지하는 실의 공간과 실체의 양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 허의 공간과의 상호 관계성을 인식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곧 입체

조형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입체조형의 공간성은 운동을 통해 3차원을 넘어서서 4차원이 되기도 한다. 평면조형은 2차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동감의 표현이 어렵다. 모빌이나 키네틱 조각은 4차원적인 탐구로서 직접 물체가 움직여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차원인 시간성을 창조한다.

4) 촉각적 특성

입체조형은 재료와 구성의 효과, 표현 기법 등을 촉감을 통해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입체조형에서 중요한 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입체조형의 이러한 촉각적인 특성에서는 질감(texture)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질감은 작품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성질과 느낌이다.

입체표현을 할 때에는 선택하는 재료 자체의 본성적 질감, 즉 재질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촉감적 질감과 시각적 질감의 두 가지 범주는 실제로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이나 조각의 촉감적인 질감, 즉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질감을 갖기고 있다.

아동의 입체표현에서도 재료의 선택에서 오는 질감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료를 선택한 후 그 재료가 가진 물성과 질감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표현방법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재료의 다양성

입체표현에서 재료가 갖는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재료는 작품의 형성소재이다.

입체작품 제작의 소재에는 표현수단으로서의 소재인 '형성소재'와 대상으로서의 소재인 '표현소재'가 있다.

둘째, 재료는 작품의 존재 방식이다.

재료는 작품의 존재를 구체화하고 영속성을 부여하게 된다. 재료는 각기 고유한 감각영역에 속하고 여기에 작가의 형성이 가해지기 때문에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료는 유기적인 통일체로서의 작품에서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에게 재료가 갖는 의미를 케일러(L.Keiler)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술재료는 표현에 가시적인 형태를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재료는 자료와 용구와 함께 모두 교구적 성격을 가지고 학생들과 교사에 의하여 ‘어떻게 활용 되었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료의 발견과 활용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학습활동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어린이 미술 교육에 있어서 재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현애심, 2002, p.9).

다. 입체조형 발달 단계

아동은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며 자신의 세계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게 되고 3차원 세계를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평면에 표현하면서 느끼던 저항감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 자기 수준에 맞는 경험과 표현의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노력해야 할 점일 것이다. 그러나 입체 표현의 발달단계는 평면표현의 연구에 비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입체표현의 발달을 알기 위해서는 분석할 작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통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체재료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그 표현소재나 주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입체표현의 발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재료로는 찰흙이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가 접할 수 있는 입체적인 미술 재료는 많지만 어린이의 생각과 느낌, 정서와 미적 감각 등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재료여야 한다.

그럼 찰흙으로 어떤 소재를 표현해야 입체표현의 발달과정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인가? 표현소재역시, 어린이 입체표현의 발달단계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술표현의 발달에서 마구 끄적이는 단계를 지나면 대부분의 어린이는 사람부터 그리기 시작한다. 골롬브(Golomb)의 연구에 의하면 입체표현의 경우도 찰흙을 주무르거나 떼는 등 찰흙을 가지고 노는 단계가 지나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표현 하는 것도 사람이다. 또한 사람을 소재로 만든 작품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상이므로 발달단계를 알 수 있는 분석기준과 항목을 설정하기 쉽다.

입체 표현 발달에 대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입체조형의 발달 단계를 찰흙을 통한 인체표현의 발달상을 가지고 분류한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의 의견(이규선 외, 2001, pp.115-133)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탐색적 유희기(4세이하)

탐색적 유희기는 입체 재료를 가지고 놀고 즐기면서 평면적으로 구체적 형상을 탐색하는 단계로서, 입체 재료를 가지고 즐기면서 노는 과정과 3세 후반기로부터 나타나는 초기 인물 형태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입체표현은 평면표현과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다. 둥근 형태나, 두족류의 표현, 초기 표현의 세 단계 등은 매우 유사한 발달을 보여준다. 입체재료에 의해 작업하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표현이나 도식들이 쉽게 형성되지 못한다. 그리고 평면표현에서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흔적들이 쉽게 표현되어 자신의 의도를 비교적 요이하게 표현하였으나, 입체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아 언어적 보충이 보다 많아진다. 그러나 평면표현에서 힘든 뒷모습이나 옆모습 등의 표현과 이해는 입체표현을 통해 익힐 수 있다.

2) 평면적 상징기(4-8세)

평면적 상징기는 입체재료를 평면적으로 표현하면서 대상을 상징적,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단계이다. 평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입체재료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으로 바닥에 눕혀 입체표현을 하는 것이다. 평면적 표현은 평면적 상징기나 탐색적 유희기의 어린이들이 만드는 두께가 얇고 상징적이고 비교적 미숙한 표현이고 누워있는 표현은 입체적 탐색기 이후의 어린이들이 만드는 것으로 두께가 두껍고 사실적이며 입체적인 작품이다.

이 시기의 입체 표현은 입체 재료를 가지고 평면적으로 표현해 내는 특징을 보이며, 부분적인 것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입체적 탐색기(8-10세)

입체적 탐색기는 입체재료를 대부분 입체로 표현하지만 상징적 표현의 단계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사실적 표현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앉아 있는 표현이 많은 입체적 표현, 전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증가, 사실표현에 대한 탐색, 팔 움직임 표현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즉, 직립표현이 반 정도로 많아지고 직립표현과 평면적 표현을 이어주는 앉아있는 표현이 많아진다. 머리의 각 부분과 목, 손, 발

의 표현에서 사실표현이 많아지고 팔의 움직임 표현도 갑자기 늘어나며, 다리, 몸통의 움직임도 많아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4) 입체적 사실기(10-12세)

입체재료의 대상을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전체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입체적인 형태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하며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직립표현이 대부분이고 평면적 표현은 매우 적은 비율이며, 몸통과 팔, 다리는 대부분의 어린이가 표현한다. 부분보다 전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주제를 나타내는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머리의 각 부분과 목, 손, 발의 표현에서 사실표현이 많아져 모두 상징 표현보다 사실 표현의 비율이 높으며, 팔과 다리, 몸통의 움직임 표현이 매우 많아진다.

5) 공간적 사실기(12세 이상)

공간적 사실기는 자신이 주제를 선택하여 표현하고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중학생 이상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를 흔히 사춘기라고 하며 신체와 정신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이 시기의 입체표현도 상당한 변화를 겪는데 비판의식과 인식능력이 발달하여 자신의 표현과 다른 사람의 표현, 자신의 표현과 표현대상을 비교하면서 표현에 자신감을 갖거나 극도의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그동안의 무의도적으로 빛는 행위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표현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대상을 보고 그것과 닮게 만들려는 것 뿐 아니라 어떤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상상과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 시기에 만들기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은 좀 더 객관적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려 하며 표현 대상의 질감과 양감, 운동감 등 3차원의 특성이 강조된 표현을 하게 된다.

공간관계에 대한 인식의 표현은 대상에서 대상의 각 부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각 대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 관계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각 대상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 관계에 따라 표현함을 의미한다.

또한 선택적 표현은 대상 중에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여 입체로 나타내고 표현에서 생략하고 무시할 부분과 중시하고 세밀히 표현할

부분을 나름대로 선정하여 표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표Ⅲ- 1> 아동 입체조형발달의 특징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형	-주관적인 인물 표현으로 특정 부위를 과장하거나 생략 -부분적인 것에 관심이 많음 -세부의 상징 표현이 많음 -몸통표현, 머리모양이 남녀별, 가족간에 차이가 남 -비례가 자연스러워짐	-직립표현, 앓아있는 표현이 많음 -전체적 모양에 관심이 증가함 -안경, 머리카락 등 세부 표현에 관심이 증가하고 사실적 표현이 많아짐	-형태와 크기가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함 -전체적인 모양에 관심이 많음 -세부표현이 줄어들음 -사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관찰하고 단순화함
색	-도식적인 색	-색개념의 형성	-색의 성질과 기능을 인식 -사실적인 색
질감	-개념 형성이 안됨	-다양한 물체를 누르거나 새겨서 표면을 처리함	-질감효과의 조화와 부조화를 구별할 수 있음
동세	-팔다리의 각이 수평, 수직 체계에서 자연스러운 각과 사선, 곡선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함 -움직임이 적음	-팔, 머리, 몸통의 움직임이 증가	-운동감에 관심이 많음 -팔, 다리, 몸통의 움직임이 많은 표현을 함 -다리의 움직임이 특히 많아짐
양감	-개념표현이 없음 -머리는 구형으로 입체적이거나 나머지는 두께가 얇고 평면적 -평면적 표현	-몸 전체의 비율과 두께가 비교적 정확해짐 -입체적 표현을 함	-양감에 대한 관심증가 -입체적 표현
공간	-크기, 부분과의 관계, 위치 등 공간관계가 자연스러워지는 '자연적 표현'의 초기 단계	-공간에 관한 개념이 형성 -구멍을 내는 등 공간의 가능성탐색	-형태와 공간의 조화 추구 -입체적 공간의 깊이 표현
표현양식	단순화된 상징의 시기 -종합적 방법사용 -상상력이 발달하여 관심있는 것을 만들어 표현	-도식이 등장 -사실적 표현에 대한 탐색 시기 -표현대상이 점차 자기 주변으로 넓어지기 시작함 -종합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의 비율이 비슷해짐	-소조하는 단계에서 조각하는 단계로 바뀜 -주제에서 사물의 재현보다 추상적인 것을 표현하려함 -인물이외의 배경 표현으로 주제를 강조하려 함

2. 입체조형교육

가. 입체조형교육의 필요성

그동안 아동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아동의 입체표현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론에 대한 정리가 별로 없다. 조형교육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것은 조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인지도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입체조형에 대한 연구는 아동화-평면조형의 대표적인 카테고리라 할 수 있는-에 비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어떤 입체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어렵고, 입체 작품을 모으기도 어려우며,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이규선 외, 2001, p.78). 하지만 미술이라는 것이 평면표현과 입체표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역시 더 크다면 크지 작지 않음을 인지한다면 미술교육의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입체 조형 활동으로 칭해지는 미술활동들이 미술교육에 접목되면서 다양한 재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오정현, 1996, pp.20-23).

첫째, 표현력을 길러준다.

입체표현은 어린이의 자아표현의 또 다른 방식이다. 마음은 말과 표정만으로도 나타낼 수 없다. 말과 글은 자꾸 쓸수록 사고가 발전하고 그 내용이 풍부해지듯이 표현 능력도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경험을 자주 가짐으로 해서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조형 활동은 소극적인 어린이들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표현방법이다.

둘째, 정서발달을 돕는다.

어휘가 부족한 아동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만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거나 점토를 만지면서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불쾌한 감정이 씻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문제아의 심리치료법으로 미술치료는 점토를 주무르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 핑거 페인팅 등의 조형 활동을 통하여 마음속에 억압되어 있는 심리적 갈등

을 발산시켜 주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카타르시스효과는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조형 활동의 경험은 아동의 정신적 긴장이나 갈등을 정화시켜 주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미술활동자체가 이러한 감정의 정화작용을 주기는 하나 감각적인 면에서 회화가 시각 위주라면 조각은 거기에 촉각이 부가되어 있다. 입체물을 다루는 만족감과 소재를 직접 만지고 느끼는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감각이 발달되고 감성의 발달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공감각적인 활동에 의한 제작과 창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셋째, 창의적 성장을 돕는다.

창의성이란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 생각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남의 물건이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린이들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독특한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형화하여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넷째,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사회성 발달은 어린이들이 서로 어울려서 재미있게 공동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의사교환과 기술을 습득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터득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와 동일화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입체 조형 활동은 혼자서 이뤄지는 활동도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린이들의 경우 친구들과 같이 해야 하는 작업이 많다. 크기가 크거나 여러 가지 작품을 하나의 주제 하에 같이 꾸며야 하는 일도 많다. 그래서 더욱 상호간의 대화와 어울림,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인지발달을 돕는다.

인지발달은 인간의 내면적 요인이 외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3차원의 입체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사물을 그리려면 그 대표적인 특징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상상하여 관찰한 바를 독창적으로 표현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찰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만들고 꾸미는 활동하는 조형 활동은 인지 발달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기가 3차원적인 현상을 뇌에서 재인식하여 평면으로 옮기는 2차적인 표현 활동이라면 만들기는 3차원 형상의 질감과 무게 등 물질적 현상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1차적 활동이다. 1차적 활동이 관심을 끄는 동기는 강하지만 구체화시키는 행동은 훨씬 어려운 활동이다(하명금, 2005). 재료나 용구를 다루는 활동을 통해 재료와 용구를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탐구하게 된다. 그 결과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인지적 측면에서도 성장이 이루어진다.

여섯째, 신체적 성장을 촉진한다.

입체표현은 온몸을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지적인 학습에서보다 몸 전체를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입체작업은 아동들의 신체근육을 발달시키며, 이는 신체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작업에 의한 신체발달은 시각과 근육운동간의 협응에서, 또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절하고 신체기능을 사용하는 데서 볼 수 있다.

찰흙을 만지고 던지는 움직임 같은 단순한 협응으로 시작하여 가위질하기, 종이 찢어 붙이기, 나무에 못박기 등 신체의 각 동작들이 능동적으로 협응하는 수준까지 어린이는 점차 신체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1997, pp.559-561).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작품의 제작과 재료의 접근만으로도 여러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기능, 수공 및 신체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나. 입체 조형교육의 효과

아이스너는 아동의 미적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의 경험과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아동은 그 범주 안에서 미적 능력을 발휘한다고 했다.

이것은 시각적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가능성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

미지를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구성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 등, 인간능력의 이러한 측면을 육성해야 할 책임이 미술교육에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물체에 대한 입체적 감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경험과 외부로부터의 교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공간개념도 인간의 사고력과 교육에 의해 터득되며, 그것이 일정한 발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므로, 아동 입체조형 능력은 교육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서울 교대미술교육연구회, 1994, pp.289-290).

이 같은 아동 입체조형의 특징이 아동 입체 작품의 표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문화의 교육적 측면이다.

입체조형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주변의 재료를 발견하게 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환경에 조화하고 적응하게 함, 환경을 조정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한다. 입체조형 활동의 준비와 표현활동, 정리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학습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계획하고 조정, 관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조소 작품 감상을 통해 사회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입체조형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드러내는 의사소통 방법을 알게 된다.

둘째, 통합적 미술활동의 측면이다.

입체조형은 평면표현의 시각적인 면과 더불어 촉각적이며 운동감각적인 표현과정이 요구되므로 감각적으로도 통합활동이 된다. 소근육운동과 조형 감각이 협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주는 입체조형의 과정을 통해 운동감각과 촉각을 활용하게 되고 다양한 감각을 표현활동 속에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입체조형의 특성상 생활 주변, 환경, 자연 속에서의 구체적 대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자신과 생활, 자신과 미술, 그리고 생활과 미술을 통합하는 미적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합은 어린이들의 미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심미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도 계발시킬 수 있다.

셋째, 사고력 향상의 측면이다.

인지 심리학의 영향으로 표현 활동이 단순한 자아 표현이 아니라 인지적 활동을 바탕으로 함을 주장하는 이론들도 제기되고 있는데, 미술을 통한 교육적 경험

은 미술품에 나타난 인간 경험을 문화적 맥락에서 모색함으로써 미적, 문화적 지각력을 발달시키고, 사고하고, 관련짓고,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또한 미술교과도 학문이 갖는 본질적인 내용과 탐구의 방식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내용과 과정이 통합적으로 상호작용 함으로써 사고력을 높일 수 있다(안금희, 2001, p.71).

넷째, 자연 및 물체의 체험의 기회이다.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인간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한 물성 체험은 더욱 중요하다. 정보화, 전자화 사회일수록 어린이들에게 교육에서는 자연친화적이며 자연과 사물, 환경과의 직접적 접촉과 교감을 이루는 활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시되어야 한다. 정서적인 교육의 한 방면으로서라도 자신과 생활주변, 자연,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그것을 직접 눈으로, 손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표현하는 입체조형 활동을 통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표현력 향상의 측면이다.

아동은 생활경험의 느낌과 생각을 미술표현으로 표출함으로써 정서의 순화와 미적상상력 발달을 돕는다. 특히 입체조형은 아동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사물들을, 또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평면적 표현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적 입체적 표현의 조화를 깨닫게 한다. 입체조형은 어린이들에게 입체적 형태감각을 발달시킨다.

입체조형의 표현가능성은 다양한 재료와 그에 따르는 용구의 사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입체조형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생활주변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에 적절한 용구의 사용은 손의 기능을 확대하여 의도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좀 더 쉽게 한다.

다. 입체조형교육 현황

입체조형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으나 아직까지 우리의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걸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초등미술교육에서는 입체 표현에 대한 지도가 평가나 환경 미화 등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도 방법이나 재료와 용구의 어려움 등에 의해 평면 표현보다 등한시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들 역시 고학년으로 갈수록 미술활동에 대하여 부담을 갖게 되고 입체조형활동에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의 연구물에 따르면 “표현방법을 자세히 안 가르쳐준다”, “표현활동시간이 모자라다”, “항상 똑같은 활동만 한다”등의 불만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임채선, 2002, p.50).

현재 우리나라의 입체표현 교수방법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입체표현 교수학습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교사를 위한 이론 및 실기 교재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교사들이 참고하는 교과서나 지도서는 그 내용면에서 입체조형의 지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소재나 입체조형작품의 소개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으며 지도서 역시 일반적인 소재의 소개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재료의 특성이나 유의점,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그 이상이 없음이 또하나의 문제라 하겠다.

입체조형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도구의 활용과 재료의 성질, 그리고 표현 방법들을 교사가 비교적 상세히 알고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하나의 주제가 다른 재질의 재료를 통해 표현되었을 때 질감과 느낌의 차이를 설명으로 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한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표현 방법은 직접적인 경험없이 교실에서 처음 다룰 수 있는 교사 역시 없을 것이다.

둘째, 교육 환경면에서 입체 조형 교육을 위한 환경 설비 및 용구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입체조형 지도시에 참고 작품을 2차원적인 도판자료를 통해 감상을 하였을 때 공간적인 특성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학교에서 실제로 구입하고 다룰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함도 사실이다. 몇 안되는 학교에 마련되어 있는 미술실은 대체로 입체 조형 교수학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입체 조형 활동에 필요한 용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다루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부피와 공간을 차지하는 입체조형 용구들을 구비해줄 만한 장소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입체 조형 지도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학생시절 익힌 미술지도(혹은 미술체험)영역은 대부분 평면적인 활동에 국한되었고, 그들이 교사입문 전 대학에서 습득한 입체 조형 경험만으로는 다양한 방법과 재료의 입체 조형 지도가 어렵다. 교사들의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입체 조형지도는 교사 자신에게도 불만족스러울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입체 조형 교수학습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재의 학습조건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며, 이를 보충할 소프트웨어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입체조형 교육의 현실이 그다지 녹록치는 않으나 박정환(2006)은 미적 안목과 조형능력 습득을 위한 학습의 원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짐으로써 형태와 색, 공간과 질감, 평면과 입체 등의 요소 속에서 원리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미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적 동기 유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표현 제재와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조형 표현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라 볼 수 있다.

셋째,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활동 중심으로 지도해야한다(안영기 외, 1990).

어린이들이일 수록 그 정신 능력의 발달이 구체적·지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미술 지도의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물과 현상을 눈앞에 놓고 그것을 관찰, 조작, 비교, 시범, 탐색하는 직접 경험 활동 중심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넷째, 조형 표현에 있어 기법 중심으로 반복적·체계적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게는 한 학년에서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며, 크게는 전 학년에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조형 표현의 방법에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제공되어 있으나 이것을 열어둔 상태에서 주제 중심으로 지도하다 보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흘러가게 되어 수업목표를 도달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질 때 활동 경험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나 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조형 표현에 있어 안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다섯째, 융통성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

수업에 있어 수업목표가 있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나 조형 표현에 있어 일정한 수업 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수업을 하다 보면 계획하고 있던 그 이상의 수업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여섯째, 통합적으로 접근한다(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1997).

지적 발달의 초기에는 지각이나 사과의 분화가 원만하지 못해서 미분화된 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섬세한 활동보다는 미분·통합적인 활동의 전개가 더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일곱째, 조형 표현 교육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형 표현에 대한 이해 수업을 기초로 하여 표현과 감상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체계적이면서도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스스로 탐색하게 하고, 스스로 조형 표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여 감상과 연결시켜 주어 미적 안목을 높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여덟째, 지도교사는 도우미 역할로써 충실해야 한다.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표현 욕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아홉째, 작품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칭찬과 격려는 아동으로 하여금 성공의 경험을 증대시키고 근면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미술교육 현장에서 입체조형교육은 그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간적, 시간적 여건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발전 경향에서도 보아지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재료의 혼재는 재료에 대한 탐구와 경험에서 시작되어 질 것이나 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IV. 초등학교 입체조형교육의 내용

초등학교 미술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은 선행연구물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미술교육과정, 평면표현단원과 입체조형단원의 비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물에서는 초등학교 제 7차 교육과정 3학년 미술교과서 5학년 미술교과서를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제도권에서 단독 교과로서의 미술 과목이 시작되는 3학년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고학년으로서의 학습이 시작되는 5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미술교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면서 객관적인 미술교육의 외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등학교 미술교육과정

가. 현행 교육과정의 특징

현행 교육과정인 제 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목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개발하여 심미적 태도를 함양한다(교육과학부, 2007)’로 제시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하나의 체계로 설정하여 교육과정 내용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적체험은 미적 대상의 가치 발견 및 이해와 향수를 목표로 하여 미적 가치 체험 활동을 통해 미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표현활동과 감상활동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적체험과 표현, 감상이 상호 연계되고 영향을 주어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시안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와 부분적인 개정이 목적이었다. 지적된 교육과정 영역별 문제점으로는 성격에서 미술에 대한 낭만적 관점의 강조와 사회문화적 성격의 미흡이 지적되었고, 목표에서는 목표 진술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것과 학교 급별 지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것이, 내용에서는 미적체험 영역의 성격과 활동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것, 표현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의 반복으로 인한 표현

제재가 중복된다는 점과 감상 영역을 비평가 미술사로 구분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은 학교 미술교육에서 사회 문화적,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인 육성,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 제공, 국가 교육과정의 명료화, 통합적 경험의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나. 교육목표의 특징

제 7차 초등학교 미술과 목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로 설정되어 있다. 그 하부 목표는

- 가.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 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다.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문화 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인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연계성을 살린 미술과 교육을 위하여 미술 교과 총괄 목표 아래 학교급별의 수준을 두지 않고 세 개의 구체적인 하부목표로 제시하였다.

하부목표인 가항은 미적체험, 나항은 표현, 다항은 감상능력과 관련되며, 이를 통해 미술교과의 총괄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미술과 내용을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을 함께 묶어서 2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IV-1>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미술’의 필수학습요소와 내용

영역	3,4학년 필수학습요소 및 내용	5,6학년 필수학습요소 및 내용
미 적 체 험	1)자연미의 발견 선과 형의 아름다움찾기 색의 아름다움 찾기	1)자연미와 조형미의 특징 이해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기 자연과 조형물의 형과 색에서 변화 발견하기
	2)조형미의 발견 선과 형의 아름다움찾기	2)자연과 조형물의 관계이해 자연의 특징을 살린 조형물을 찾아보

	색의 아름다움찾기	기 자연과 조형물의 조화를 발견하기
표현	1)주제표현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나타내기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 나타내기 평이한 한글로 나타내기	1)주제표현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을 나타내기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평이한 한글로 나타내기
	2)표현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기본적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기 판본체로 쓰기	2)표현방법 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알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하여 나타내기 판본체, 궁체로 쓰기
	3)조형요소와 원리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등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점획의 길이, 방향 등을 익혀서 쓰기	3)조형요소와 원리 형, 색, 질감, 동세, 양감, 공간 등을 생각하여 나타내기 문자의 짜임새, 점획의 변화 등을 익혀서 쓰기
	4)표현재료와 용구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알고 나타내기 용구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4)표현재료와 용구 여러 가지 재료의 성질을 살려서 나타내기 용구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활용하기
감상	1)서로의 작품감상 서로의 작품에서 좋은점, 재미있는 점 등을 찾아보기 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등의 차이에 관하여 토론하기	1)서로의 작품감상 서로의 작품에서 표현 특징 찾아보기 서로의 작품을 보고 표현의 차이에 관하여 토론하기
	2)미술품감상 우리 고장의 미술품에서 좋은점, 재미있는 점 등을 찾아보기 우리 나라의 미술품에서 좋은 점, 재미있는 점 등을 찾아보기	2)미술품감상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에서 표현의 특징을 찾아보기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품을 보고, 표현의 차이에 관하여 토론하기

2.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의 특징

가. 교과서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교과서제도를 검인정제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한국미술교육학회 편, 2007) 국가경제상의 문제로 인해 검인정제도로의 계획은 무산되고 이전의 교과서체제를 새롭게 개편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구상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교과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교과서 발행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국·검정·인정 혼용제이고(일본은 주로 검정제이고, 실업계의 검정 미출원분만 국정으로 발행) 독일, 이스라엘 등이 검정제이다(허강, 1999). 이 같은 현상은 영국이나 스웨덴 등의 자유 발행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는 교과서의 무상 대여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아래의 표에서 '병용'으로 표시된 국가는 ①학교급별로 의무교육 혹은 초등학교는 국정제, 중등학교는 자유발행제 식으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거나, ② 한 학교급내에서 과목별로 두 가지 이상의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거나, ③ 각 주별로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이다.

<표 IV-2> 교과서 발행에 따른 국가별 분석표

구 분	국 가
자유발행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정제	미국, 프랑스,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검정제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국정제	북한, 필리핀, 핀란드
검정·인정제 병용	스페인, 러시아
국정·검정제 병용	중국(1986년 이후),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정·자유발행제 병용	뉴질랜드, 스위스
국정·인정제 병용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국정·검정·인정제 병용	한국, 일본, 멕시코

우리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미술 교과서는 1종 국정 교과서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해야만 하며, 특히 미술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의 교과서 제작비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술교과서의 특색을

지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으며 참고도서인 경우도 흑백 인쇄의 교사용 지도서 외에는 별다른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수경, 1999, pp. 279-280).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초등학교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정시에만 이뤄져 왔던 교과서 검정 역시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시대의 변화와 학문 발전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과서를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방식은 무상이나 유상이나, 또 1인당 한 권씩 아예 주는 것이나, 빌려주는 것이나로 나뉜다. 유상제의 경우 학생 본인이 교과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가질 수 없는 대여제도 가능하지만 대개 학생소유가 되도록 하는 급여제와 동일어로 사용된다. 무상제는 교과서 값을 학생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 등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 등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무상제의 경우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 등에서 교과서를 산 후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급여제, 무상대여제로 나뉜다.

<표IV-3> 각국의 교과서 사용제

	구분	국가
무상제	무상급여제(개인소유)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한
	무상대여제(학교비치)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필리핀, 스리랑카, 덴마크, 태국, 러시아
	급여제·대여제 병행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무상제와 유상(급여·대여)제 병행	초등-무상대여, 고등-유상	한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초등-무상대여, 중등-유상	네덜란드
	유상·무상대여 병행	말레이시아
	유상, 빈곤학생-무상급여	인도, 아일랜드, 브라질
유상제	유상급여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미술교과서의 경우, 타교과에 비해 정밀한 색상과 많은 수의 도판이 요구되어 제작비도 많이 드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교과별 책정액수를 맞추다 보면 설명과 도판의 수가 제한된 교과서를 제작하게 된다. 학교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책의 표지를 양장본으로 하여 여러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며,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이 넣는 반면 매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 일수 있다.

우리 나라도 과목별 특징을 살린 다양한 교과서 사용방법을 구안해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3. 초등학교 입체조형교육의 내용

미술교과서내에 제시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체 조형 교육의 내용을 객관적 지표에 의해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입체조형교육의 내용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미술 3학년, 4학년 교과서와 일본의 개롱당에서 제작한 3·4학년 도화공작을 비교한 노지향(2004)과 이일우(2003)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가. 표현방법

우리나라 미술교과서의 경우 단원의 제대에 따른 표현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아동 스스로 재료를 탐색하도록 하여 적당한 표현방법을 찾게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현대 미술의 동향을 살펴보면, 회화, 조소, 디자인 등의 영역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장르의 개념을 타파하는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는 현실은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드러내는 창작 활동에서 굳이 기존의 영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표현영역의 구분보다 자유로운 조형활동을 통한 통합적 시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개별 활동보다는 그룹이나 집단 활동이 많고, 프로젝트수업을 위주로 한다. 종이 조형이나 그림자 놀이, 종이판화, 찰흙조소, 철사조형 등 다양한 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이론이나 지적학습 보다는 표현적 측면이 강하고, 자유로운 소재와 표현재료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체육관, 운동장, 야외 등 활동 공간의 확장을 과감히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표현 재료와 용구

다양한 재료의 개발과 이의 적절한 활용은 미술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연구되고 소개되어야 하지만, 교과용 도서에서 새로운 재료를 제시할 때는 학교 현장에서 손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IV-4> 두 나라 교과서에 나타난 입체 표현재료와 용구

	우리나라3,4학년 미술교과서	일본의 3·4학년 도화공작
소재	찰흙,지점토, 종이찰흙	찰흙, 종이찰흙, 지점토, 액체 점토
용구	궁글대,찰흙주걱,찰흙판, 접착제, 셀로판테이프, 양면테이프, 풀, 본드 가위, 자, 스테이플러, 칼, 현수건, 핀셋, 잉크나이프	찰흙 절단용 철사줄 접착제, 본드, 풀 가위, 칼, 망치, 톱, 실톱, 송곳, 삽, 손전등, 장도리, 못
기타	부직포, 천, 색실, 털실, 모루 나무판, 나무젓가락, 베니어화판, 나뭇가지 포크, 못, 철사, 병뚜껑, 알루미늄호일, 피복전선, 날크립, 알루미늄 철사	여러 가지 천, 털실, 색실, 레이스천, 손장갑, 모루, 크리스마스 장식끈, 현양말 다양한 종류의 목재, 나뭇가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얇은 나무판 못, 철사, 알루미늄캔, 알루미늄철사, 피복전선, 고정너트, 고철, 못, 캔
재활용품	노끈, 빗, 비닐봉지, 빨대, 우유팩, 빨래집게, 고무줄, 실핀, 종이컵, 구슬, 폐품, 스티로폼 판, 달걀판, 돌, 수수깡, 고구마, 밤, 콩, 노끈	솜, 수수깡, 돌, 솔방울, 구슬, 조개껍데기, 포장용 끈, 수세미, 각종장식, 빨대, 색비닐, 투명호스,1회용접시, 비닐포장지, 1회용도시락용기, 단추, 병뚜껑, 곡식류, 청소용 솔, 과일포장지, 나뭇잎, 새끼줄, 투명우산, 우산뼈대, 요구르트통, 노란 고무줄, 플라스틱 음료수병, 휴지심, 필름통뚜껑

표현 재료와 용구를 살펴보면, 미술 수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교과서는 좀 더 보수적이며, 일본은 톱, 실톱은 물론 전기톱까지도 사용하여 보다 기능적인 작업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도화 공작’이라는 교과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작’활동을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중요시하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톱, 망치, 편치, 칼, 못, 철사, 드릴 등의 용구나 재료 사용에 관한 설명과 교육도 3학년부터 철저히 이루어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구 사용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조형 활동을 하고 있다.

조소재료를 살펴보면 우리는 3학년은 찰흙, 지점토를 사용하며, 4학년은 찰흙, 지점토, 고무찰흙 이외에도 철사로 뼈대를 만든 후 호일로 붙여보게 하고 있다. 일본은 각각 찰흙, 지점토, 액체 점토, 고무 찰흙, 다양한 종류의 목재 등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며 깎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술에 각종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에 비하여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학생들이 직접 전기기구, 비디오 카메라, 환등기 등을 사용하여 표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 표현활동 제재

한국과 일본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 방법용어인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판화, 붓글씨쓰기, 조형놀이 등 여섯 가지 표현 방법별 활동 제재 분포를 비교하였다.

<표Ⅳ-5> 두 나라 교과서의 표현제재분포비교

구분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판화	붓글씨	조형놀이
우리나라 3학년	6	7	7	1	2	0
미술	26.0%	30.4%	30.4%	4.3%	8.7%	0
일본의 3·4학년	8	2	8	2	0	3
도화공작 上	34.7%	8.7%	34.7%	8.7%	0	13%

한국교과서는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보인다. 그러나 꾸미기 제재 7개 중 6개가 평면표현이어서 평면과 입체로 볼 때는 평면표현에 치우쳐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교과서는 꾸미기제재가 모두 입체표현으로 되어 있고, 판화가 평면표현이기 때문에 평면표현과 입체표현으로 구분한다면 각각 43.3%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가 크게 대비를 이루는 점은 일본 교과서에 우리에게서 별도의 활동 영역으로 구성되지 않은 “조형놀이”가 13%라는 큰

비중을 가지고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라. 참고도판비교

교과서에 실린 도판 중 학생 작품을 표현방법별로 정리하였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한국교과서의 “붓글씨로 쓰기”단원과 일본교과서의 “조형놀이”단원은 제외하였다.

<표Ⅳ-6> 두 나라 교과서 학생작품의 표현 방법별 비교

구분	우리나라 3학년 미술		일본의 3·4학년 도화공작 上	
평면조형작품	그리기	15 16%	25 36.7%	
	꾸미기	23 24.5%	6 8.8%	
	판화	4 4.3%	5 7.4%	
	소계	42 44.7%	36 52.9%	
입체조형작품	꾸미기	0 0%	15 22.1%	
	만들기	52 55.3%	17 25.4%	
	소계	52 55.3%	32 47.1%	
총계	94	68		

한국 교과서는 평면작품보다 입체 조형작품이 10.6%를 더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교과서는 평면조형작품이 5.8% 더 실려 있지만 한국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 교과서가 입체 꾸미기 작품이 하나도 없으면서 입체 조형 작품의 비중이 많은 것은 “찰흙의 세계”단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 많은 참고 작품을 실고 있기 때문이다. 입체 꾸미기 작품에 대한 관심과 입체 조형의 폭이 매우 좁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앞의 표를 구상과 비구상의 틀로 다시 한번 나누어 분석하여보았다.

<표 IV-7> 두 나라 교과서 학생작품의 표현 방법별 비교

구분	우리나라 3학년 미술			일본의 3·4학년 도화공작 상			
	작품총수	구상	비구상	작품총수	구상	비구상	
평면조형 작품	그리기	15	11 73.3%	4 26.7%	25	18 72%	7 28%
	꾸미기	23	16 69.6%	7 30.4%	6	6 100%	
	판화	4	4 100%		5	2 40%	3 60%
	소계	42	31 73.8%	11 26.2%	36	26 71.4%	10 28.6%
입체조형 작품	꾸미기	0			15	5 33.3	10 66.7
	만들기	52	45 86.5%	7 13.5%	17	9 52.9%	8 47.1%
	소계	52	45 86.5%	7 13.5%	32	14 43.8%	18 56.2%
총계	94	76 80.9%	18 19.1%	68	39 58.2%	28 41.8%	

한국교과서 학생작품의 사실적 표현 비중을 표현 방법별로 살펴보면 그리기 73.3%, 꾸미기 69.6%, 판화 100%, 만들기 86.5%이고,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그리기 72%, 꾸미기 100%, 판화 40%, 입체꾸미기 33.3%, 만들기 52.9%로 나타나 사실적 표현의 비중이 대부분 50%를 넘고 있다.

그러나 작품 전체의 비중을 종합해 보면 일본 교과서는 사실적 표현 및 비사실적 표현이 58.2%와 41.8%로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데 반해 한국의 교과서는 80.1%와 19.1%로 사실적 표현의 비중이 압도적임을 볼 수 있다.

마. 보조자료

교사가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자료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각 출판사마다 새로운 미술 교과서(도화공작)를 잘 사용하고 질 높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각종 참고

교재가 제공된다. 사용하기 손 쉬우면서 선명한 인쇄의 참고자료가 많이 실린 교사용 지도서(실천편, 연구편, 도감편), 도움이 되는 참고 교재 및 교육도서, 제사용 참고 자료 카드 및 감상자료, 참고자료 및 수업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영상매체인 비디오 테이프, CD-ROM 및 수업진행을 도와주는 계간 잡지 등이 각 출판사마다 경쟁적으로 개발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미술 교과서는 1종 국정 교과서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해야만 하며, 특히 미술교과서와 다른 교과와 교과서 제작비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술교과서의 특색을 지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으며 참고도서인 경우도 흑백 인쇄의 교사용 지도서 외에는 별다른 참고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질적인 수준이 아동 교육 현장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속적인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이수경, 1999, pp.279-280).

V. 초등학교 입체조형교육의 실태

1. 조사 방법 및 대상

가. 조사 도구의 작성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입체 조형 교육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지를 조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는 교육과정운영방법을 중심으로 미술교육에 관한 문헌 및 참고자료와 선행 연구물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개발은 조형교육에 대한 연구물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내용을 결정하였고, 3,4,5,6학년 동료 교사 15명에게 사전 투입하여 각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검증 받고 문항 내용의 추가, 삭제, 통합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그리고 지도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개발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1> 설문지 개발 과정

개발 절차	방법 및 내용
설문지 문항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미술 교육과정 운영 과정, 입체 조형 단원 운영의 절차, 입체 조형 단원 운영의 미비점 도출 등 선행 연구물과 출판물들을 기초로 하여 내용 분석
설문지에 필요한 정보 결정	응답자인 교사의 성별, 경력 등의 배경을 묻는 질문과 입체조형 교육의 실시 장면과 문제점과 요구점을 중심으로 문항 결정
설문지 형태 결정	응답자의 편리와 코딩의 편리를 고려하여 질문지의 체제 결정
1차 사전 검사	동료교사 15명에게 사전 투입하여 각 문항 내용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검증 받고 문항 내용의 추가, 삭제, 통합
내용 타당도 검사	지도 교수와의 협의를 통하여 각 문항의 타당성을 점검
설문지 완성	문항의 내용과 수를 조정하고 오탈자의 수정 편집 후 설문지 완성

설문지의 내용은 미술교육과정운영전반에 관한 질문과 조형교육관련 단원의

운영에 관한 질문으로 크게 나뉘며 문항은 모두 18문항으로 작성하였다. 미술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들의 배경 변인으로서 성별, 교직경력, 가르치는 학년 등에 대한 문항도 포함되었다.

모든 문제는 객관식 문항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각자의 의견을 적어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V-2> 설문지의 내용

설문영역	문항수	설문내용
기초조사	4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교육경력
		응답자의 담당학년
		학교의 미술실 설치 여부
미술교육 전반	8	미술과목의 난이도
		미술영역의 중요도 순위
		실기기법의 중요도 인식 순위
		교수학습모형
입체조형 수업 전반	11	참고작품
		실기지도의 난이도
		실기기법 및 재료의 경험과 교수학습활동의 관련성
		입체조형 활동의 평가 및 감상
미술교육과정운영	4	입체 조형 교육의 중요성 인식 순위
		미술교과 전담에 대한 의식
총계	27	미술수업의 효과적인 방안

나. 조사대상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2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배부와 수집은 2008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우편을 이용하였으며 250부중 총 22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무효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

으로 선택된 가용 설문지 192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다.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사회과학 통계 처리 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선택형 문항의 경우,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백분비로 전체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물에서는 각 문항별로 백분율을 산출하여 도표로 제시하였으며, 각 문항을 교사의 교육경력과 가르치는 학년의 두 배경 변인만을 추출하여 비교 분석하고 도표로 제시하였다.

유의미한 결과나 공통되는 사항 등은 서술로 제시하였다.

2. 조사 결과 분석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는 228명으로 교직경력, 담당학년, 성별, 교내 미술실의 구비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른 문항과 교차분석하여 보았으나, 카이검정에서 유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차분석 결과는 실지 않았다.

가. 응답자의 배경변인

응답자의 성별로 보면 여자가 162명이고, 남자가 30명으로 여교사가 다섯배 이상 많다. 교직 경력별로는 6년에서 10년인 교사가 61명으로 가장 많고, 16년에서 20년의 교사가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응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 문항별 응답 분석

1) 미술교육 전반에 관한 인식 조사

미술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미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미술교과목의 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질문에 응답한 교사191명중 70%가량의 교사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5.8%, 타교과와 비슷하다22%, 가끔어려움을 느낀다 60.2%, 어렵다 12%).

세부적으로는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1년-5년”은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 65.2%, “타 교과를 가르칠 때와 비슷하다” 23.9%, “어렵다” 8.7%,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무” 2.2%순, “6년-10년”은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 54.1%, “타 교과를 가르칠 때와 비슷하다” 27.9%, “어렵다 ” 13.1%,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 4.9%순, “11년-15년”은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 64%, “타 교과를 가르칠 때와 비슷하다” 28%, “어렵다 와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무는 동일하게” 4%순, “16년-20년”은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 62.5%, “어렵다” 29.2%, “타교과를 가르칠 때와 비슷하다” 8.3%순, “20년 이상”은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 60%, “타 교과를 가르칠 때와 비슷하다” 14.3%,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무” 17.1%, “어렵다” 8.6%순으로 유의수준 * $p < .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V-3> 미술과목을 가르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 N(%)*p<.05

미술과목을 가르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구 분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다	타 교과를 가르칠 때와 비슷하다	가끔 어려움을 느낀다	어렵다	χ^2 (p)	
성별	남		5(16.7)	23(76.7)	2(6.7)	4.963 (.175)
	여	11(6.8)	37(23)	92(57.1)	21(13)	
교육 경력	1년-5년	1(2.2)	11(23.9)	30(65.2)	4(8.7)	23.595 (.023*)
	6년-10년	3(4.9)	17(27.9)	33(54.1)	8(13.1)	
	11년-15년	1(4)	7(28)	16(64)	1(4)	
	16년-20년		2(8.3)	15(62.5)	7(29.2)	
	20년 이상	6(17.1)	5(14.3)	21(60)	3(8.6)	
학년	1학년	3(13)	6(26.1)	12(52.2)	2(8.7)	22.375 (.216)
	2학년	4(18.2)	4(18.2)	10(45.5)	4(18.2)	
	3학년	1(3.3)	8(26.7)	17(56.7)	4(13.3)	
	4학년	2(6.3)	10(31.3)	16(50)	4(12.5)	
	5학년	1(2.7)	8(21.6)	26(70.3)	2(5.4)	
	6학년		5(15.2)	24(72.7)	4(12.1)	
	교과전담		1(7.1)	10(71.4)	3(21.4)	
계	11(5.8)	42(22)	115(60.2)	23(12)		

많은 교사가 미술교과목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술 교과목 지도가 어렵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았다.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4>미술과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떤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지 모두 표시하여주십시오.		
구 분	N	%
교구학습 모형 구안	5	2.8
동기유발 및 미적 체험	40	22.6
실기지도	92	52
평가	16	9
감상	24	13.6
기타	-	

<표 V-4 >에서와 같이 교사들은 미술지도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단계를 ‘실기지도’로 꼽고 있었다. 52%의 교사가 실기지도를 가장 어렵다고 여기고 있으며 그 외 동기유발 및 미적 체험, 감상 순으로 꼽고 있었다.

미술과의 영역을 기존의 회화, 입체조형, 디자인, 서예, 감상 및 조형 5개 영역과 초등학교 1,2학년과정에서 중요시 다뤄지는 조형놀이를 더해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회화 57.8%, 감상 및 비평 16.6%, 입체조형 11.2%, 조형놀이 8.6%, 디자인 4.3%, 서예 1.6%순으로 나타났다.

형태의 인식과 표현의 기본이 되는 회화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영역별 중요도에 서도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났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감상영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입체조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에 비해 매우 떨어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5> 미술과 영역별 중요도 N(%)*p<.05

미술과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회화	입체조형	디자인	서예	감상 및 비평	조형놀이	X ² (p)
성별	남	13(43.3)	2(6.7)	2(6.7)	2(6.7)	6(20)	11.134 (.049*)
	여	95(60.5)	19(12.1)	6(3.8)	1(6)	25(15.9)	
교육 경력	1년-5년	21(47.7)	5(11.4)	4(9.1)	1(2.3)	5(11.4)	26.266 (.157)
	6년-10년	35(60.3)	6(10.3)	3(5.2)		13(22.4)	
	11년-15년	14(58.3)	2(8.3)		1(4.2)	2(8.3)	
	16년-20년	16(66.7)	3(12.5)			4(16.7)	
	20년이상	22(59.5)	5(13.5)	1(2.7)	1(2.7)	7(18.9)	
학년	1학년	15(62.5)	3(12.5)			5(20.8)	37.9 (.152)
	2학년	11(52.4)	2(9.5)	1(4.8)	1(4.8)	2(9.5)	
	3학년	15(51.7)	2(6.9)	3(10.3)		7(24.1)	
	4학년	18(58.1)	5(16.1)	1(3.2)		6(19.4)	
	5학년	19(54.3)	6(17.1)	1(2.9)		6(17.1)	
	6학년	23(69.7)	3(9.1)	1(3)		4(12.1)	
교과전담	7(50)		1(7.1)	2(14.3)	1(7.1)	3(21.4)	
계	108(57.8)	21(11.2)	8(4.3)	3(1.6)	31(16.6)	16(8.6)	187

교사들에게 실기 기법의 중요성을 느끼는 영역을 물었다. 교사의 수준이 교육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예체능교과에서 교사의 실기기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기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매우 중요한 수업기술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

<표 V-6>실기기법의 사전경험이 필요한 영역

교사의 실기 기법 사전 경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영역은 어느 것입니까?						
구 분	회화	입체조형	디자인	서예	X ² (p)	
교육 경력	1년-5년	17(37)	12(26.1)	1(2.2)	16(34.8)	13.459 (.337)
	6년-10년	21(34.4)	7(11.5)	7(11.5)	26(42.6)	
	11년-15년	11(44)	4(16)	3(12)	7(28)	
	16년-20년	12(50)	3(12.5)	1(4.2)	8(33.3)	
	20년 이상	9(25)	9(25)	2(5.6)	16(44.4)	
학년	1학년	13(52)	4(16)	3(12)	5(20)	15.495 (.628)
	2학년	6(27.3)	4(18.2)		12(54.5)	
	3학년	10(34.5)	5(17.2)	1(3.4)	13(44.8)	
	4학년	9(28.1)	6(18.8)	3(9.4)	14(43.8)	
	5학년	14(37.8)	5(13.5)	4(10.8)	14(37.8)	
	6학년	12(36.4)	9(27.3)	3(9.1)	9(27.3)	
	교과전담	6(42.9)	2(14.3)		6(42.9)	
계	70(36.5)	35(18.2)	14(7.3)	73(38)		

실기기법의 사전경험이 가장 필요한 영역을 묻는 질문에서는 서예 38%, 회화 36.5%, 입체조형 18.2%, 디자인 7.3% 순으로 서예부분의 응답이 가장 많다.

영역별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회화영역을 높게 평가하는 데 비해 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서예 실기기법의 사전경험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사전 경험에 대한 질문을 실기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좋을 영역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아진다. 입체조형 실기기법 사전경험의 중요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나 있었다.

지금까지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실기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실기지도 중, 서예영역에서의 실기기법에 대한 경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사들은 미술과의 표현영역 들 중 교수학습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는 질문에 입체조형(29.9%)이라고 하였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입체조형이나, 실기기능을 익히면 좋을 것으로 보아지는 영역은 서예와 회화였다. 즉, 교사들은 입체조형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나, 실기기능을 익힐 필요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표 V-7> 표현영역중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영역

미술과의 표현영역 중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갖는 영역을 2가지까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N	%
회화	86	27.7
입체조형	96	29.9
디자인	49	15.3
서예	87	27.1

교사들의 교과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 중요도에 대한 표현은 공개수업이나 연구수업을 하는 과목으로도 많이 표출이 된다. 그래서 공개수업이나 연구수업시 미술과 수업을 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공개수업이나 연구수업시 미술과 수업을 한 경험은 없다는 응답이 86.6%, 있다는 응답이 13.4%로 대부분의 교사가 미술과 공개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이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공개수업이나 장학지도 등 공개 수업이나 연구 수업 등의 기회가 연 1회 이상 있는 것을 감안할 때 86.6%의 교사가 미술과 공개 수업경험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V-8 > 미술교과의 공개수업 여부 N(%)

공개수업이나 연구 수업시 미술과 수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 분	있다	없다	χ^2 (p)	
성별	남	6(20)	24(80)	1.323 (.250)
	여	19(12.2)	137(87.8)	
교육 경력	1년-5년	7(15.6)	38(84.4)	3.409 (.492)
	6년-10년	5(8.6)	53(91.4)	
	11년-15년	5(20.8)	19(79.2)	
	16년-20년	2(8.3)	22(91.7)	
	20년 이상	6(17.1)	29(82.9)	
계	25(13.4)	161(86.6)	186	

공개수업경험이 있다는 경우에서 미술과목을 공개수업으로 선택했던 이유를 보면 40%의 교사가 어린이들이 미술과 수업에 흥미와 재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미술과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교사들이 판단하고 있으나 다른 이유로 인해 미술과 수업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9> 미술과 공개 이유

미술과를 공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어린이들이 미술과 수업에 흥미와 재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목보다는 단원을 보고 선택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기타	χ^2 (p)
계	10(40)	8(32)	2(8)	1(4)	4(16)	

이와 관련해 미술수업을 공개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영역의 수업을 했는지를

알아보았다. 디자인관련단원이 가장 많았고, 회화와 입체조형의 경우 24%씩으로 동일했다.

공개수업의 경우 어린이들의 학습활동을 활동적으로 보여주고, 수업의 결과물이 단위시간 내에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 어린이들의 다양한 작품활동 내용을 볼 수 있는 영역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입체조형활동 역시 어린이들이 즐겁고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표 V-10 > 공개 미술수업의 주제영역

공개하신 미술과 수업의 주제는 어떤 영역이었습니까?						
구 분	회화	입체조형	디자인	서예	감상 및 비평	χ^2 (p)
계	6(24)	6(24)	9(36)	1(4)	3(12)	

대부분의 교사가 미술과 수업 공개를 꺼리고 있었는데 공개수업으로 미술과를 선택한 경우가 없었다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교사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었다는 답변이 44.1%로 우위를 차지 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며 전술한 바와 같이 공개수업의 경우, 과목에 대한 교사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는 미술수업 공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이나 결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교사들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어 한다면 교사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덜기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한 미술과 연수와 미술전담제 등의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1년-5년”은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어서” 48.5%, “미술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27.3%, “수업활동 내용 중 공개수업에 보여줄 만한 다양한 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15.2%, “아이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9.1%순, “6년-10년”은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어서” 42.9%, “수업활동 내용 중 공개수업에 보여줄 만한

다양한 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26.5%, “미술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10.2%, “아이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8.2%, “교수학습모형이나 자료 등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8.2%, “아이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8.2%, “본인은 하고 싶었으나 주변 선생님들이 만류해서” 4.1%순, “11년-15년”은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어서” 36.8%, “수업활동 내용 중 공개수업에 보여줄 만한 다양한 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21.1%, “미술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21.1%, “아이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15.8%, “본인은 하고 싶었으나 주변 선생님들이 만류해서” 5.3%순, “16년-20년”은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어서” 63.2%, “수업활동 내용 중 공개수업에 보여줄 만한 다양한 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21.1%, “미술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10.5%, “아이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5.3%순, “20년 이상” “미술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40%,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어서” 32%, “수업활동 내용 중 공개수업에 보여줄 만한 다양한 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12%, “교수학습모형이나 자료 등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12%, “아이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4%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 미술실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1 >미술과 공개수업을 꺼리는 이유

공개수업이나 연구수업 때 미술과 수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어서	본인은 하고 싶으나 주변 선생님들이 만류해서	수업활동 내 아이들의 교수학습 미술 수업에 보여 줄 만한 양한 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공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자료 정확하지 않거나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수업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지 못해서	χ^2 (p)
1년-5년	16(48.5)		5(15.2)	3(9.1)		9(27.3)	26.579 (.148)
6년-10년	21(42.9)	2(4.1)	13(26.5)	4(8.2)	4(8.2)	5(10.2)	
11년-15년	7(36.8)	1(5.3)	4(21.1)	3(15.8)		4(21.1)	
16년-20년	12(63.2)		4(21.1)	1(5.3)		2(10.5)	
20년 이상	8(32)		3(12)	1(4)	3(12)	10(40)	
계	64(44.1)	3(2.1)	29(20)	12(8.3)	7(4.8)	30(20.7)	

2) 입체조형 수업에 관한 인식 조사

미술과 수업의 경우 타 교과에 비해 수업모형에 대한 논의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료도 많지 않아 공개수업으로 적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교사들은 입체조형관련 수업시 어떤 방식으로 교수학습모형을 찾아서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약 50%가량의 교사들은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모형이나 수업단계를 따르고 있었으나 스스로 구안하거나(36.1%) 교수학습모형없이 수업을 하는 경우(11%)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체조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의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년과 관련하여 1학년은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 56%,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사용” 44%, 2학년은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 54.5%,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사용” 31.8%,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찾을 수가

없다” 13.6%, 3학년은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 51.7%,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사용” 27.6%,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찾을 수가 없다” 13.8%, “다른 교과 수업 모형을 적용” 6.9%, “4학년”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 38.7%,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사용” 35.5%,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찾을 수가 없음” 16.1%, “다른 교과 수업 모형을 적용” 9.7%, “5학년”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 54.1%,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사용” 32.4%,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찾을 수가 없다” 8.1%, “다른 교과 수업 모형을 적용” 5.4%, “6학년”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 45.5%,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사용” 42.4%,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찾을 수가 없다” 9.1%, “다른 교과 수업 모형을 적용” 3%, “교과전담”은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사용” 42.9%,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 35.7%,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찾을 수가 없다” 21.4%순 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교육경력, 미술실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입체조형 교수학습모형 N(%)

입체조형 수업시 교수학습모형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구 분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	다른 교과 수업모형을 적용	적당한 교수학습 모형을 찾을 수가 없다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모형을 구안하여 사용	χ^2 (p)
1학년	14(56)			11(44)	
2학년	12(54.5)		3(13.6)	7(31.8)	
3학년	15(51.7)	2(6.9)	4(13.8)	8(27.6)	
4학년	12(38.7)	3(9.7)	5(16.1)	11(35.5)	14.843
5학년	20(54.1)	2(5.4)	3(8.1)	12(32.4)	(.673)
6학년	15(45.5)	1(3)	3(9.1)	14(42.4)	
교과전담	5(35.7)		3(21.4)	6(42.9)	
계	93(48.7)	8(4.2)	21(11)	69(36.1)	191

입체조형 수업은 일반 평면수업에 비해 실제적인 재료의 차이를 느껴봐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감상되며 공간과 작품의 관계를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입체적인 작품을 보고 감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작품의 감상(51%)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도판을 통한 감상(40.1%)으로 입체조형의 감상이 이뤄지고 있어 감상 수업에 있어서도 실제 입체와 평면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입체조형의 경우 실물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자료의 보관 및 관리가 어려워 대부분은 사진으로 그 자료를 남겨두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입체 조형 참고작품을 보관·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포트폴리오해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1년-5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성 작가나 어린이들의 작품사진 이용” 48.9%,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 작품 주로 이용” 40%, “직접 만들거나 구해둔 실물 자료 이용” 6.7%, “도록이나 미술관련 서적 참고”

2.2%, “참고 작품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2.2%순, “6년-10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성 작가나 어린이들의 작품사진 이용” 47.5%,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 작품 주로 이용” 39.3%, “직접 만들거나 구해둔 실물 자료 이용” 6.6%, “도록이나 미술관련 서적 참고” 3.3%, “참고 작품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3.3%순, “11년-15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성 작가나 어린이들의 작품사진 이용” 60%,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 작품 주로 이용” 40%순, “16년-20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성 작가나 어린이들의 작품사진 이용” 58.3%,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 작품 주로 이용” 37.5%, “도록이나 미술관련 서적 참고” 4.2%, “20년 이상”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성 작가나 어린이들의 작품사진 이용” 48.6%,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 작품 주로 이용” 43.2%, “직접 만들거나 구해둔 실물 자료 이용” 5.4%, “도록이나 미술관련 서적 참고” 2.7%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 미술실과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 입체조형시 활용되는 참고작품

입체조형은 평면작업에 비해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재질의 차이를 느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입체조형수업시 참고작품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구분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작품 주로 이용	직접 만들거나 구해둔 실물자료 이용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성 작가나 어린이들의 작품사진 이용	도록이나 미술관련 서적 참고	참고작품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χ^2 (p)
1년-5년	18(40)	3(6.7)	22(48.9)	1(2.2)	1(2.2)	
6년-10년	24(39.3)	4(6.6)	29(47.5)	2(3.3)	2(3.3)	
11년-15년	10(40)		15(60)			7.809
16년-20년	9(37.5)		14(58.3)	1(4.2)		(.954)
20년 이상	16(43.2)	2(5.4)	18(48.6)	1(2.7)		
계	77(40.1)	9(4.7)	98(51)	5(2.6)	3(1.6)	192

입체조형 수업시 실기활동 지도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86%의 교사가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대답을 주었다. 미술수업에 있어 실기활동은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화자의 논문에 따르면 경인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미술지도에 있어 역량의 부족을 느끼는 분야로 ‘다양한 표현 및 제작기법 31.3%’을 들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교사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입체조형 실기활동지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경우 그 이유로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경우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입체조형활동에 있어서 거의 방임에 가까운 상태로 실기지도가 이뤄진다고 할 것이다.

<표 V-14 >입체조형 실기지도의 난이도

입체 조형 실기활동 지도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구 분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없다	χ^2 (p)
1년-5년	40(88.9)	5(11.1)	3.404(.493)
6년-10년	50(83.3)	10(16.7)	
11년-15년	20(80)	5(20)	
16년-20년	23(95.8)	1(4.2)	
20년 이상	32(86.5)	5(13.5)	
계	165(86.4)	26(13.6)	191

입체조형 수업에서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낀 교사들은 조형수업에 필요한 기법 및 경험이 부족하여 지도가 어려웠음(27.2%)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조형수업에 필요한 공구 및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19.9%)는 대답과 조형수업에 필요한 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16.5%)는 대답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각 답변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보아 주어진 문항들 전반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교사들은 입체조형 수업에 있어 관련 제재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려 하나 그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대로 구할 수 없었거나 물리적인 환경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입체조형 수업시 실기지도에 어려운 이유

입체조형 수업에서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우셨던 이유로 2가지까지만 선택해주십시오			
구 분	N	%	
조형수업을 할만한 공간이 부족하였다.	24	8.8	
조형수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	54	19.9	
조형수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도구의 사용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38	14	
조형수업에 필요한 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45	16.5	
조형수업에 필요한 기법 및 경험이 부족하여 시도하기 어려웠다.	74	27.2	
조형수업은 긴 시간단위가 필요하나 운영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37	13.6	

<표 V-16 >입체조형 실기활동이 어렵지 않은 이유

입체조형 수업에서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지도하는 편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의 조형활동실기기 술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이미 기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X ² (p)	
1년-5년	2(40)	2(40)	1(20)			
6년-10년	3(42.9)	1(14.3)	3(42.9)			
11년-15년	2(40)	1(20)	1(20)	1(20)	11.534 (.484)	교육 경력
16년-20년			1(100)			
20년 이상	1(25)	3(75)				
계	8(36.4)	7(31.8)	6(27.3)	1(4.5)		

앞선 질문에서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체조형실기 활동이 어렵지 않다는 교사들 중 31.8%가 실기기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라고 대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입체조형시에 다루어 지는 재료에 대한 교사의 선경험이 중요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입체조형 수업 시 교사가 미리 경험했던 기법이나 재료의 사용이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면 얼마나 될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교사(95.9%)가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교사가 어려워하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보충자료의 제공이 학습현장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사 연수의 기회와 자료의 제공 및 개발이 필요하다.

<표 V-17 >입체조형 수업시 선경험의 도움정도*p<.05

입체조형 수업시 교사가 미리 경험했던 기법이나 재료의 사용이 수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구 분	많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X ² (p)	
교육 경력	1년-5년	20(42.6)	22(46.8)	2(4.3)	3(6.4)	11.97 (.448)
	6년-10년	29(47.5)	30(49.2)	1(1.6)	1(1.6)	
	11년-15년	12(48)	12(48)	1(4)		
	16년-20년	14(60.9)	9(39.1)			
	20년 이상	23(62.2)	14(37.8)			
학년	1학년	10(40)	14(56)	1(4)		29.423 (.043*)
	2학년	18(81.8)	2(9.1)	1(4.5)	1(4.5)	
	3학년	17(56.7)	12(40)		1(3.3)	
	4학년	20(62.5)	12(37.5)			
	5학년	18(48.6)	19(51.4)			
	6학년	10(30.3)	21(63.6)	1(3)	1(3)	
	교과전담	5(35.7)	7(50)	1(7.1)	1(7.1)	
계	98(50.8)	87(45.1)	4(2.1)	4(2.1)		

입체조형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기법들에 대한 지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 교사들에게 습득되어질까?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것을 감안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지식은 대학교육과 교사연수를 통해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짐작되어지나, 설문결과는 초·중·고등 학생 때 수업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28.1%)이 대부분이었다.

과학과 연수나 영어과 연수 등 최근 많은 연수에서 교과목별 교사의 재교육을 말하고 있다. 대학에서 미술과 심화과정을 이수하는 교사는 전체 교사의 10%도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본과정을 이수하는 현실에서 대학교육에 입체조형기법이나 내용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졸업

후 실시되어지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재료나 기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V- 18 >입체조형 수업에 필요한 경험의 습득 경로

입체조형 수업시 선생님이 계신 기법이나 재료에 대한 경험은 언제 습득하신 것입니까? 모두 표시하여주십시오.			
구 분	N	%	
본인이 초.중.고등학생 때	75	28.1	
대학재학 학교에서 습득	50	18.7	
대학졸업후 교사연수에서	35	13.1	
다른 선생님들의 조언이나 수업을 통해	30	30	
대학졸업후 개별적으로 학원이나 레슨 등을 통해	18	6.7	
기타	9	3.4	

수업활동 단계에 맞추어 입체조형평가가 다른 미술활동의 평가에 비해 어려운 지, 어렵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수량화·등급화된 결과처리 및 평가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답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미술과 자체가 갖는 과목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교육경력 1년-5년의 교사들은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 제대로 된 평가 어려움” 27.7%, “학습태도와 과정 및 결과를 객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다” 25.5%, 6년-10년의 교사들은 “수량화 등급화된 평가 및 결과처리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29.5%, “학습태도와 과정 및 결과를 객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다” 29.5%, “교사자신의 미적 식견과 조형감각 부족” 23%, 11년-15년의 교사들은 “수량화 등급화 된 평가 및 결과처리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54.2%, “학습태도와 과정 및 결과를 객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다” 12.5%, 16년-20년의 교사들은 “교사자신의 미적 식견과 조형감각 부족” 30.4%, “수량화 등급화 된 평가 및 결과처리 방법으

로 평가하기 어려움” 26.1%, 끝으로 20년 이상의 교사들은 “수량화 등급화 된 평가 및 결과처리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38.9%, “학습태도와 과정 및 결과를 객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다” 36.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학년, 미술실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 입체조형평가의 난이도

입체조형관련 수업 평가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구 분	교사자신 의 미적 식 건 과 조형감각 부족	학급당 인 원수가 아 적 어려움	수량화 등급화 평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학습태도와 과정 및 결과를 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없다	입체조형 평가 가 어 렵 지 않 다	χ^2 (p)
1년-5년	9(19.1)	13(27.7)	9(19.1)	12(25.5)	3(6.4)	28.969 (.088)
6년-10년	14(23)	8(13.1)	18(29.5)	18(29.5)	3(4.9)	
11년-15년	3(12.5)	3(12.5)	13(54.2)	3(12.5)	2(8.3)	
16년-20년	7(30.4)	3(13)	6(26.1)	3(13)	4(17.4)	
20년 이상	4(11.1)	4(11.1)	14(38.9)	13(36.1)	1(2.8)	
계	37(19.4)	31(16.2)	60(31.4)	49(25.7)	13(6.8)	

최근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감상활동의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미술 감상은 미술 수요자의 안목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느낌과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된다.

입체조형은 일반미술, 회화와 다르다. 입체조형은 말 그대로 실제 공간에 구체적 물질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 후, 좌, 우로 돌아보고 때로는 만져 볼 수 있는 다시점과 촉각적 특성을 갖는다. 즉,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으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입체영역이 갖는 특징을 살린 감상수업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19.5%의 교사들만이 실물자료를 활용한 입체조형감상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14.7%의 교사들은 거의 감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입체작품의 감상활동이 사진자료등을 통해 평면작품으로 뒤바뀌어 감상되고 있

다. 이는 입체작품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의 작품을 보관 및 전시할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기회를 통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전시 작품을 직접 감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교육 연수활동을 통해 지역의 입체조형물에 대한 감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마련이 시급하다.

<표 V-20> 입체조형관련 감상수업운영방법 N(%)

입체조형관련 감상수업을 어떻게 운영 하십니까?						
구 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감상	미리 구해둔 실물자료나 또래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감상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작품을 감상	감상수업을 거의 못하고 있다	χ^2 (p)
1년-5년	18(38.3)	5(10.6)	18(38.3)	1(2.1)	5(10.6)	17.05 1 (.382)
6년-10년	20(33.3)	10(16.7)	22(36.7)		8(13.3)	
11년-15년	3(12.5)	7(29.2)	9(37.5)	1(4.2)	4(16.7)	
16년-20년	9(39.1)	2(8.7)	8(34.8)		4(17.4)	
20년 이상	6(16.7)	10(27.8)	12(33.3)	1(2.8)	7(19.4)	
계	56(29.5)	34(17.9)	69(36.3)	3(1.6)	28(14.7)	

제 7차 교육과정의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면 표현체제 중 평면표현은 62%, 입체표현은 38%(서예 제외)의 비중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입체표현도 대부분 구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구상에 치우쳐 있다. 입체표현과 평면표현의 균형이 맞지 않는 현실에서 입체표현의 장르적 균형이나 다양한 기법의 소개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로 보아지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실제적으로 입체표현활동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뤄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재료와 도구에의 다양한 경험(32.3%)과 더불어 교사의 다양한 실기 기능 및 현대미술에 대한 연수(28.6%)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임채선(2002)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미술 활동에서 경험했던 여러 활동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표현 방법과 표현 재료에 대해... 찰흙 만들기를 가장 좋아하였으며 대체로 포스터 그리기, 수채화 그리기, 서예 등은 귀찮고 하기 싫은 활동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 미술 연수로 수채화 기법을 배운 교사가 아이들에게 참고 작품을 제시하면서 수채화의 특성, 표현 방법 등을 가르치며 여러 차시에 걸쳐 지도한 학급이 있는데 그 학급에서는 오히려 가장 좋아하고 흥미로운 활동은 수채화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생각해보면 교사들이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활동의 경우 교수 학습활동의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 교사들의 요구대로 실기 기능 및 현대미술에 대한 연수가 있게 되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재료와 도구에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표 V-21 >입체표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선결조건

입체표현활동이 좀더 내실있게 이뤄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교사의 다양한 실기 기능 및 현대미술에 대한 연수	어린이들의 재료와 도구의 다양한 경험	시간 운영의 탄력적 수 운영으로 입체조형시, 활동 시간의 확보	작업을 할 수 있고, 작품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기타	X ² (p)
1년-5년	15(31.9)	18(38.3)	6(12.8)	5(10.6)	2(4.3)	1(2.1)	14.032 (.829)
6년-10년	16(26.7)	18(30)	6(10)	15(25)	4(6.7)	1(1.7)	
11년-15년	7(29.2)	7(29.2)	4(16.7)	4(16.7)	2(8.3)		
16년-20년	7(31.8)	7(31.8)	4(18.2)	1(4.5)	3(13.6)		
20년 이상	9(25)	11(30.6)	8(22.2)	7(19.4)	1(2.8)		
계	54(28.6)	61(32.3)	28(14.8)	32(16.9)	12(6.3)	2(1.1)	

미술교육전반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조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단지 11.2%의 교사들만이 입체 조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형교육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질문한 결과 51%의 교사들은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는 세대에게 손으로 여러 가지 물성을 체험하는 직접적인 촉감의 경험에서 그 중요성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술 수요자적 감성 및 교육으로서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라는 측면보다는 인성적 측면과 교육적 도구로서의 측면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었다.

<표 V-22 >조형교육의 중요성

조형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현대미술에서는 입체조형과 평면조형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미술수요자 교육의 측면	가상세계에서의 3차원 또는 4차원적인 활동이 늘어나는 세대에 손으로 여러 가지 물성을 체험하는 직접적인 촉감의 경험	혹은 3차원 또는 4차원적인 입체의 제작을 하는 합리적인 촉발달을 꾀하는 측면	회화작업 등에 비해 많은 아이들이 쉽게 완성의 쾌감을 얻고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적 측면		χ^2 (p)
	1년-5년	1(2.2)	26(56.5)	14(30.4)	5(10.9)	
	6년-10년	5(8.3)	27(45)	16(26.7)	12(20)	
교육 경력	11년-15년	1(4.2)	14(58.3)	5(20.8)	4(16.7)	9.478 (.662)
	16년-20년		13(56.5)	8(34.8)	2(8.7)	
	20년 이상	4(11.1)	18(50)	8(22.2)	6(16.7)	
	계	11(5.8)	98(51.9)	51(27)	29(15.3)	

3)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있어 교사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각 교과별 교과전담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인다. 그러나 미술교과

전담보다는 영어, 음악, 체육 교과 전담을 선호하여 우선 배정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때문에 미술전담교사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미술교과에 대한 전담제 운영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교사들이 가장 편하고 다양한 잡무를 처리하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시간들 중 하나가 미술교과시간이라고 말하여진다. 그러나 예상외로 미술교과전담제를 희망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다. 조사대상중 67.7%의 교사가 미술교과전담교사를 원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 다양한 실기지도 기술과 재료다루기에 능숙할 것이라는 이유가 48%를 차지하였다. 또한 미술교과의 특성상 학년별 단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여 지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26%로 그 다음을 차지 하였다.

반면에 미술 전담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32.3%의 교사들은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상 담임교사가 발상과 학습동기 부여에 더욱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기술적인 지도의 필요성보다는 인성적 감성적 지도가 요구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교과전담제의 폭넓은 실시와 더불어 미술교과전담제의 필요가 요구되어진다.

<표 V-23 > 미술교과전담제 선호도

미술교과전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	미술전담교사가 없어도 좋다	χ^2 (p)
1년-5년	30(65.2)	16(34.8)	.341(.987)
6년-10년	42(70)	18(30)	
11년-15년	16(66.7)	8(33.3)	
16년-20년	16(69.6)	7(30.4)	
20년 이상	24(66.7)	12(33.3)	
계	128(67.7)	61(32.3)	

위 <표 V-23>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술교과전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 67.7%,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없어도 좋다” 32.3%순으로 미술교과전담제에

대해서는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1년-5년”은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 67.7%,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없어도 좋다” 34.8%, “6년-10년”은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 70.%,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없어도 좋다” 30.%, “11년-15년”은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 66.7%,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없어도 좋다” 33.3%, “16년-20년”은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 69.6%,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없어도 좋다” 30.4%, “20년 이상”은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 66.7%,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없어도 좋다” 33.3%순으로 미술교과전담제에 대해 응답자 모두 “미술교과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성별, 학년, 미술실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 미술교과전담교사의 필요성 N(%)

어떤 이유에서 미술전담교사가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구 분	전담교사가 있으면 실기지도기술 및 재료다루기에 능숙할 것	학년별 단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해본다면 전담교사의 지도가 더 효과적	미술교육의 이론적인 측면과 교수방법을 연구하여 지도할 수 있으므로	참고 작품 등의 체계적 관리와 수집이 용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재료, 도구 등 수업준비 가 용이	X^2 (p)
	1년-5년	14(46.7)	5(16.7)	6(20)	2(6.7)	3(10)
	6년-10년	21(51.2)	11(26.8)	5(12.2)	2(4.9)	2(4.9)
교육 경력	11년-15년	9(56.3)	3(18.8)	2(12.5)		2(12.5)
	16년-20년	7(43.8)	5(31.3)	3(18.8)		1(6.3)
	20년 이상	10(41.7)	9(37.5)	3(12.5)	1(4.2)	1(4.2)
	계	61(48)	33(26)	19(15)	5(3.9)	9(7.1)

<표 V-25 > 미술전담교사의 불필요성

미술전담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미술수업은 미술수업 기술적인 면의 난이 보다 감성적 도나 위 인성적 측면 힘도가 에서 다뤄져 그 다 지 야 하는 수업 높지 않 이므로 으므로	미술수업 가 아동 들 자유 로운 발 상을 하 기 용이 하므 로	담임교사 가 아동 들 자유 로운 발 상을 하 기 용이 하므 로	다른 과목 미술교과 에 비해 교 전문성이 사의 시간 부족 한 적 능력적 교 사 가 부담이 적 맞는 경 은 수업이 우가 많 므로 으므로	기타	X ² (p)
1년-5년	6(40)		2(13.3)	6(40)	1(6.7)	
6년-10년	4(23.5)	2(11.8)	8(47.1)	1(5.9)	2(11.8)	
11년-15년	1(12.5)	1(12.5)	4(50)	1(12.5)	1(12.5)	22.647 (.306)
16년-20년	1(16.7)		3(50)	1(16.7)	1(16.7)	
20년 이상	4(36.4)	1(9.1)	5(45.5)	1(9.1)		
계	16(28.1)	4(7)	22(38.6)	10(17.5)	3(5.3)	2(3.5)

끝으로 현장에서 미술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선결과제인지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29.2%의 교사가 임용후 교사의 실기연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미술실 및 미술실기도구의 확충(22.3%)을 그 다음 선결조건으로 삼았다.

<표 V-26 > 미술수업의 효과적 방안

현장에서 미술수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까지 표시하여주십시오.?

구 분	N	%
임용전 다양한 미술실기 교육(대학에서의 미술 기 교육 강화)	54	17.7
임용후 교사 실기연수(과학실험연수와 같이 실기연수의 강화)	89	29.2
미술실 및 미술 실기 도구의 확충	68	22.3
미술전담교사의 확보	54	17.7
참고자료의 다양화(교사용지도서외의 교사 참고 및 지도자료)	40	13.1

3. 분석결과

가. 미술교육 전반에 관한 인식 조사

많은 교사가 미술교과목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술과의 수업단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는 실기지도의 단계를 꼽았고, 그다음으로는 미적체험과 동기유발 단계를 어려운 단계로 보고 있다.

미술과의 영역을 기존의 회화, 입체조형, 디자인, 서예, 감상 및 조형 5개 영역과 초등학교 1,2학년과정에서 중요시 다루지는 조형놀이를 더해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반 이상의 교사들이 회화영역을 중요하게 보았다.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감상영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단 11%의 교사들만이 입체조형 영역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기방법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영역으로는 서예와 회화가 1.5%차이로 우위를 차지하였다.

미술과의 표현영역 들 중 교수학습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은 입체조형(29.9%)이라고 하였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입체조형이나, 실기기능을 익히면

좋을 것으로 보아지는 영역은 서예와 회화였다. 즉, 교사들은 입체조형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나, 실기기능을 익힐 필요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부모공개수업이나 장학지도 등 공개 수업이나 연구수업 등의 기회가 연 1회 이상 있다. 그러나 86.6%의 교사가 미술과 공개수업경험이 단 한번도 없다고 하였다.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중 단 17.1%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교사가 미술교과공개에 자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수업경험이 있다는 경우에서 미술과목을 공개수업으로 선택했던 이유를 보면 40%의 교사가 어린이들이 미술과 수업에 흥미와 재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미술과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교사들이 판단하고 있으나 다른 이유로 인해 미술과 수업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수업을 공개한 적이 있는 경우, 디자인관련단원이 가장 많았고, 회화와 입체조형의 경우 24%씩으로 동일했다.

대부분의 교사가 미술과 수업 공개를 꺼리고 있었는데 공개수업으로 미술과를 선택한 경우가 없었다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 교사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었다는 답변이 44.1%로 우위를 차지 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며 전술한 바와 같이 공개수업의 경우, 과목에 대한 교사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는 미술수업 공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이나 결과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나. 입체조형 수업에 관한 인식 조사

입체조형 수업에 있어 약 50%가량의 교사들은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수업모형이나 수업 단계를 따르고 있었으나 스스로 구안하거나(36.1%) 교수학습모형 없이 수업을 하는 경우(11%)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체조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의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입체적인 작품을 보고 감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작품의 감상(51%)과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도판을 통한 감상(40.1%)으로 입체조형의 감상이 이뤄지고 있어 감상 수업에 있어서도 실제 입체와 평면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입체조형 수업시 실기활동 지도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86%의 교사가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는 대답을 주었다. 미술수업에 있어 실기활동은 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화자(2007)에 따르면 경인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미술지도에 있어 역량의 부족을 느끼는 분야로 ‘다양한 표현 및 제작기법 31.3%’을 들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의 교사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입체조형 실기활동지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경우 그 이유로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하거나, 그저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경우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입체조형활동에 있어서 거의 방임에 가까운 상태로 실기지도가 이뤄진다고 할 것이다.

입체조형 수업에서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낀 교사들은 조형수업에 필요한 기법 및 경험이 부족하여 지도가 어려웠음(27.2%)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조형수업에 필요한 도구 및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는(19.9%)는 대답과 조형수업에 필요한 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는(16.5%)는 대답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각 답변별로 많은 편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보아 주어진 문항들 전반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입체조형실기 활동이 어렵지 않다는 교사들 중 31.8%가 실기기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라고 대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입체조형시에 다루어지는 재료에 대한 교사의 선경험이 중요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입체조형 수업 시 교사가 미리 경험했던 기법이나 재료의 사용이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면 얼마나 될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교사(95.9%)가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교사가 어려워하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미리 경험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과 보충자료의 제공이 학습현장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사 연수의 기회와 자료의 제공 및 개발이 필요하다.

입체조형수업에 필요한 재료와 용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본인이 초·중·고 등 학생 때 수업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28.1%)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본과정을 이수하는 현실에서 대학교육에 입체조형기법이나 내용에 대한 학습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졸업후 실시되어지는 재교육이나 연수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들에게 필요한 재료나 기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입체영역이 갖는 특징을 살린 감상수업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 19.5%의 교사들만이 실물자료를 활용한 입체조형감상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14.7%의 교사들은 거의 감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입체작품의 감상활동이 사진자료등을 통해 평면작품으로 뒤바뀌어 감상되고 있다. 이는 입체작품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들의 작품을 보관 및 전시할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다양한 기회를 통해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전시 작품을 직접 감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박물관이나 미술관 교육 연수활동을 통해 지역의 입체조형물에 대한 감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마련이 시급하다.

실제적으로 입체표현활동이 좀 더 내실 있게 이뤄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어린이들의 재료와 도구에의 다양한 경험(32.3%)과 더불어 교사의 다양한 실기 기능 및 현대미술에 대한 연수(28.6%)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교사들이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활동의 경우 교수학습활동의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다. 교사들의 요구대로 실기기능 및 현대미술에 대한 연수가 있게 되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재료와 도구에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조형교육의 중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여 질문한 결과 51%의 교사들은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는 세대에게 손으로 여러 가지 물성을 체험하는 직접적인 촉감의 경험에서 그 중요성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술 수요자적 감성 및 교육으로서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라는 측면

보다는 인성적 측면과 교육적 도구로서의 측면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었다.

다.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

미술교과전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사들이 67.7%가 되었으며 그 이유로 다양한 실기지도 기술과 재료다루기에 능숙할 것 48%, 미술교과의 특성상 학년별 단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지도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26%로 그 다음을 차지 하였다.

교과전담제의 폭넓은 실시와 더불어 미술교과전담제의 필요가 요구되어진다.

미술수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어떤 것이 선결과제인지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29.2%의 교사가 임용후 교사의 실기연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미술실 및 미술실기도구의 확충(22.3%)을 그 다음 선결조건으로 삼았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입체조형교육은 순수한 조형 표현뿐만 아니라 입체 조형 과정을 통한 창의성 계발과 구조적인 균형을 구축하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미적 정서와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생활인으로서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정보화가 가속되어가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실체의 접촉과 그 감각에 의한 교육은 자연과 호흡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성을 위한 교육에서 더욱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점수와 기능 위주의 현재 교육 제도 하에서는 미술교육이 눈앞에 드러내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더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조형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술 교육과 입체조형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

시되어지는 미술교육의 의의를 짚어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입체조형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살펴보았으며,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 초등학교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교사들이 일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체조형수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어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체조형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미술교육은 창의적인 인간의 개발이라는 목적아래 더욱 중요시되어지고 있으며, 입체조형교육의 자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 미술 작품은 조형상의 폭넓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재료에서 잠재된 미를 밖으로 발현시켜내는 기법적인 측면은 아동미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즉 재료의 선택과 기법이 미술 언어에서 표현의도를 지배하며, 아동의 조형 표현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독창적인 기법을 유도함은 물론 여러 번에 걸친 노력을 통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조형의식과 점차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최병상, 1990, p.43).

둘째, 미술교육내용에 있어 입체조형교육과 평면조형교육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현대 미술가들이 하나의 매체나 장르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적절한 재료와 기법을 찾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각 장르를 통합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장르로 구분할 수 없는 작품이 제작되며, 작업에 이용 가능한 모든 재료와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한다.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던 장르는 기본적인 구분인 평면과 입체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부터 평면과 입체표현을 균형있게 지도 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에 따라 평면과 입체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미술수업에서 미술의 놀이적 요소를 간과한다면 미술이 갖는 인간발달의 유용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입체조형교육내에서는 사실적 표현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미술교과서를 살펴보면 평면과 입체표현의 균형있는 활동의

제시와 더불어 비사실적인 표현작품을 보강하여 사실적 표현과 비사실적 표현이 균형을 이루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 현대미술의 소비자가 될 아동들에게 현대미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구상 및 추상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사실적 표현과 비사실적 표현의 균형있는 지도와 예시가 필요하다. 미술 소비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다양한 유형의 작품에서 가치를 발견해 낼 수 있는 미적안목과 그에 의한 감상의 결과를 향수하는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미술교육에서는 사실적 표현과 함께 조형요소와 원리에 의해서 미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비사실적 표현을 충분히 경험하여 폭넓은 미적안목이 배양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금의 어린이들이 대부분 현대미술의 소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통합과 소재의 혼용 등으로 이뤄지는 입체표현의 특질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설문 조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미술과 교수학습활동이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실기지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기법과 내용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둘째, 많은 교사들이 공개수업이나 연구수업으로 미술과를 선택하길 꺼려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과목이긴 하나 교사 본인이 자신 없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지도가 되어 있는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 구하기 쉽지 않으며, 교사용지도서는 자료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셋째, 입체조형영역의 지도에도 대부분 평면적인 작품의 감상 및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

입체조형영역의 지도를 위한 자료가 열악하여 컴퓨터나 도판을 통한 사진자료를 통해 감상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이나 공구 등을 접하기가 어려워 찰흙이나 지점토, 종이류 등 일반적인 몇 가지의 재료만을 이용한 작은 작품을 주로 만들고 있었다.

넷째, 학교 환경과 수업환경이 대체로 열악하며 효과적인 미술 수업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미술실과 미술전담교사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공급이 그에 따르지 못하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작품의 보관 및 전시가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다양한 작업을 위한 공구를 구하기도 어려우며 이런 공구와 재료의 보관장소도 없었다.

다섯째, 미술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연수를 희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수업활동에 필요가 되는 다양한 미술실기에 대한 연수와 현대미술의 흐름과 감상을 위한 연수를 희망하고 있다.

입체조형표현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미술표현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면조형표현과 달리 입체조형 교육의 장점은 면을 다루는 평면조형 감각에서 입체를 다루는 입체조형감각으로 기능이 공간적으로 발전하고 조형적 형태를 만드는 창조적 경험과 신체를 사용하는 기능활동에 의하여 조형적인 사고가 넓어지고 창조력이 신장되는 교과라는 것이다. 또한 입체 조형 교육은 입체공간의 감각과 형태변화에 따른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함으로서 현대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체조형의 중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입체 표현에 대한 편중된 인식으로 인해 미술교육에서 입체분야가 현장수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었다.

미술과의 수업은 여러 가지 점에서 타 교과의 그것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국미술교육학회, 2007, pp.300-301). 우선 수업의 내용이 표현 및 감상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강의 중심의 수업에 비해 일제지도의 장면이 현저하게 적다. 이는 학습의 페이스를 가능한 한 개인의 능력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아동 쪽에 수업의 주도권이 옮겨지게 됨을 의미한다. 어느 교과의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미술과의 경우만큼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 아동의 흥미 유발에 깊이 관여하는 영역도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정형화된 수업 모델이 존재할 수 없는 미술과의 교육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수업시수 속에서 정선되고 계통화된 커리큘럼, 즉 교사 자신의 고안에 의한 자주편성의 커리큘럼이 필요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수업능력 신장을 위해서 미술과 연수 기회의 확대와 실효성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어

린이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일이다. 수업활동중에 실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입체조형 기법과 재료를 다루는 방법, 공구의 사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보도 들도 못한 재료와 기법에 대해 두려움 없이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교사들이 입체조형수업의 실기기능을 어려워하고, 그에 대한 연수기회의 확대를 희망한다면 좀더 다양한 기회로 그들에게 연수활동을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둘째, 입체조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미술교육과정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집필하는 단계에서부터 평면과 입체조형의 균형을 맞춰서 개발되어야한다.

다양한 선행연구물들을 통해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미술교과서는 아직도 입체조형단원과 평면조형단원의 수적인 균형도 맞추지 않고 있다. 현대미술에서는 재료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다양한 재료의 차이를 느끼고 만져보는 과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점차로 사이버공간에 익숙해가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감각과 물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져간다 할 것이다.

셋째, 입체조형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대상을 만져보고 다뤄볼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야 한다. 입체조형물의 감상과 제작활동이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미술교육활동 만으로는 부족하다. 입체조형물은 단순히 제작하는 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조형물의 재질에 따른 느낌, 놓여진 환경과의 조화, 빛의 각도에 따른 감상, 채워진 공간과 빈 공간의 어울림을 찾을 수 있을 때 입체조형교육이 의미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실을 열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공간으로 미술교육이 나갈 수 있어야한다. 지역사회 내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수준에서는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미술교과전담교사의 배치 확대가 필요하다.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설과 교구가 갖추어진 교과 전담실(미술실)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박소영, 2004). 물리적인 환경만이 미술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전문적인 지도와 보다 활동에 편리하고 재료와 공구, 참고작품의 보관과 관리, 사용이 용이한 공간

을 확보한다면 미술교육은 좀더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E.W.아이스너. (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미술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 교육부. (1997). 제7차교육과정 해설.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미술3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미술5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 권상구. (2001).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 김삼량. (1998).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성숙·김정희·김형숙·김혜숙·안금희·이성도·이주연·정여주·황연주 공저 (2007). 미술교육과 문화. 학지사.
-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1994). 미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1997). 유아미술교육학. 학문사.
- 안영기, 김춘일. (1990). 꾸미기와 만들기. 미진사.
- 오정현. (1996). 미술교육을 위한 유아 창작공예. 형설출판사.
- 유태진·정태진. (1996) 창조적 그리기 지도방법. 새한신문사.
- 유성웅. (1993). 세계조각사. 책체문화사.
- 이규선·김동영·류재만·전성수·최윤재·권준범. (2001).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 이규선의 한국미술교육학회. (1994). 미술교육학개론. 교육지학사.
- 이창림. (2002) 조각예술에서 제도의 선택과 처리. 한국미술교육학회.
- 임정기, 이성도, 김황기(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 정범모. (2002). 초등교육이 생각해야 할 몇 가지 화두-21세기 교육과 교육대학교의 위상 정립.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수원.
- 제르맹 바쟁. (1994). 세계조각의 역사. 미진사.
- 최병상. (1990).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 한국미술교육학회 편. (2007).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1997). 초등미술과 교육학. 교육과학사.
- 허버트 리드. (2001). 조각이란 무엇인가. 열화당 미술책방.
- 허강. (1999). 우리나라와 제 외국의 교과서 외형 체제 및 편집디자인의 현상 비

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원.

간행물

- 김대열. (2001). 초등학교 입체조형에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12(2)
- 박소영(2004). 제7차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실태 연구. **미술교육논총**, 18(1)
- 박휘락(1995). 한국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적 고찰. **미술교육연구논총**, 7
- 안금희. (2001). 고등사고력 신장을 위한 미학과 미술비평 통합 미술과 교수학습 원리와 사례연구. **미술교육논총**
- 이수경. (1999).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미술교과서 내용구성 참조를 위한 일본의 새로운 미술과 교과서 내용 분석. **조형교육**, 15

논문

- 노부자. (1999). 미술교육에서의 입체개념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서울.
- 노지향. (2004) 한·일 미술교과서 비교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경산.
- 박정환. (2006). 초등미술교육에서 점토 조형 표현의 단계적 접근 방안.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유순아. (2000). 국내외 초등 미술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 윤지연. (2003). 입체조형 지도를 통한 창의적인 수업방법에 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대구 가톨릭대학교,.
- 이일우. (2003). 한국과 일본의 미술 교과서 비교 연구-한일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인천.
- 임채선. (2002). 입체표현지도방에 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 정화자. (2007). 초등 미술과 교사용 지도서 활용 실태 및 개선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 최정호. (1999). 창의적인 미술표현력 신장을 위한 조형놀이 프로그램 연구. 미출

- 관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 하명금. (2005). 초등학교 미술교육에서 칼흙조형의 지도방안.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제주교육대학교.
- 현애심. (2002). 초등미술의 조형 표현에 관한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황규호. (2005). 아동 미술에서 입체조형 활동을 통한 지도방법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서울.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Th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ocused on elementary schools in Jeju-do)**

Jang, Dally

Major in Elementary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im, Chun-bae

Th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develops creativity and structural balance not only through pure formative expression but also through three-dimensional design, and thus it i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laying the ground for students to have aesthetic senses and abilities to create by themselves.

Furthermore, with the rapid advance of informatization, education by touching and sensing real objects has occupied an important position indispensable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and character of humans harmonious with nature.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emphasizing results and functions, art education has been treated

negligently for the reason that it does not produce visible result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review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formative art education through previous research,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art education in particular th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field teachers,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improving the educ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art education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personality, and in this sense, th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is expanding its domain. In terms of the contents of art education, however, th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is not balanced with two-dimensional design education.

In fact, many of contemporary artists are expressing what they want to express freely using appropriate materials and techniques rather than subjecting themselves to any specific media or genres. They create their works by integrating several genres or those not belonging to any genre, and express using all kinds of materials and media applicable. As a consequence, sub-divided genres are being integrated into plane and cubic designs, which are the basic distin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bilities to choose and integrate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expressions freely through balanced teaching of the two types of expression from elementary art education.

Art textbooks und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need to be improved in a way of suggesting balanced activities of two-dimensional and three-dimensional expression and maintaining balance between realistic and unrealistic expressions through adding art works of unrealistic expression.

In order to enhance teachers' teaching skills,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opportunities for training in art education as well as with effective training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many teachers felt difficulty in giving practical classes of three-dimensional design and wanted more opportunities for training.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reviewed in this study, art textbooks in Korea do not balance between three-dimensional and two-dimensional units quantitatively. While contemporary fine arts are being created across the boundaries of materials, school art education is even not providing a program for touching various materials and feeling differences among them.

For substantial three-dimensional design education, students should be provided with more opportunities to feel and handle actual objects. For this, art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classroom but utilize various spaces in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idea of school authorities and teachers for educational activities using art galleries and museums in communities.

In the national level, more art subject teachers should be deployed for efficient art education under the 7th National Curriculum. Moreover, the fine art curriculum requires an exclusive classroom (art room)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teaching instruments. Although physical environment does not guarantee the quality of art education, we expect that art education may be activated by more professional teaching, more convenient materials and tools, the storage and management of reference works, spaces easy to use, etc.

①__ 있다(6-1-1번, 6-1-2번으로) ②__ 없다.(6-2번으로)

6-1-1 미술과를 공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__ 대부분의 연구수업에서 하지 않는 과목이므로
- ②__ 어린이들이 미술과 수업에 흥미와 재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 ③__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흥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 ④__ 과목보다는 단원을 보고 선택했다.
- ⑤__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 ⑥__ 기타

6-1-2 공개하신 미술과 수업의 주제는 어떤 영역이었습니까?

- ①__ 회화 ②__ 입체조형 ③__ 디자인
- ④__ 서예 ⑤__ 감상 및 비평

6-2 공개수업이나 연구수업 때 미술과 수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__ 본인이 미술과 수업에 자신이 없어서
- ②__ 본인은 하고 싶었으나 주변 선생님들이 만류해서
- ③__ 수업활동 내용 중 공개수업에 보여줄 만한 다양한 활동을 찾기 어려워서
- ④__ 아이들의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 ⑤__ 교수학습모형이나 자료 등 정확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 ⑥__ 미술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다음은 미술과 **입체조형** 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7. 입체조형 수업시 교수학습모형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 ①__ 교사용지도서에 나와 있는 수업모형을 적용한다.

- ②___ 다른 교과 수업모형을 적용한다.
- ③___ 적당한 교수학습모형을 찾을 수가 없었다.
- ④___ 스스로 차시별 주제별 적당한 교수학습모형을 구안하여 사용한다.

8. 입체조형은 평면작업에 비해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재질의 차이**를 느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입체조형수업시 참고작품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 ①___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작품을 주로 이용한다.
- ②___ 직접 만들거나 구매한 실물자료를 이용한다.
- ③___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기성 작가이나 어린이들의 작품사진을 이용한다.
- ④___ 도록이나 미술관련서적을 참고한다.
- ⑤___ 참고작품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9. 입체조형에서 다양한 물성을 접해보고 조합시키며 느낌을 살리고 재료와 소재의 특성을 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체조형 실기활동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___ 어려움이 있다. (있으시면9-1로)
- ②___ 어려움이 없다. (없으시면 9-2번으로)

9-1. 입체조형 수업에서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우셨던 이유로 2가지까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①___ 조형수업을 할만한 공간이 부족하였다.
- ②___ 조형수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도구가 준비되지 않았다.
- ③___ 조형수업에 사용되는 공구 및 도구의 사용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 ④___ 조형수업에 필요한 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 ⑤___ 조형수업에 필요한 기법 및 경험이 부족하여 시도하기 어려웠다.
- ⑥___ 조형수업은 긴 시간단위가 필요하나 운영상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9-2. 입체조형 수업에서 실기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__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지도하는 편이다.
- ②__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의 조형활동실기기술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③__ 어린이들이 이미 기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④__ 기타()

10. 입체조형 수업시 교사가 미리 경험했던 기법이나 재료의 사용이 수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십니까?

- ①__ 많이 도움 된다.
- ②__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③__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__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1. 입체조형 수업시 선생님이 계신 기법이나 재료에 대한 경험은 언제 습득하신 것입니까? 모두 표시해주세요십시오.

- ①__ 본인이 초·중·고등학생 때
- ②__ 대학재학 학교에서 습득
- ③__ 대학졸업후 교사연수에서
- ④__ 다른 선생님들의 조언이나 수업을 통해
- ⑤__ 대학졸업후 개별적으로 학원이나 레슨 등을 통해
- ⑥__ 기타()

12. 입체조형관련 수업 평가가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 ①__ 교사자신의 미적 식견과 조형감이 부족하다.
- ②__ 학급당 인원수가 많아 제대로된 평가가 어렵다.
- ③__ 수량화 등급화된 평가 및 결과처리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④__ 학습태도와 과정 및 결과를 객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없다.
- ⑥__ 입체조형 평가가 어렵지 않다.

13. 입체조형관련 감상수업을 어떻게 운영 하십니까?

- ①__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감상
- ②__ 미리 구해둔 실물자료나 또래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
- ③__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감상
- ④__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작품을 감상
- ⑤__ 감상수업을 거의 못하고 있다.

14. 3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면 표현제재중 평면표현은 62%, 입체표현은 38%(서예제외)의 비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입체표현활동이 좀더 내실있게 이뤄지기 위해 해결되어야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__ 교사의 다양한 실기기능 및 현대미술에 대한 연수
- ②__ 어린이들의 재료와 도구의 다양한 경험
- ③__ 시간 운영의 탄력적 운영으로 입체조형활동 시간의 확보
- ④__ 작업을 할 수 있고, 작품을 전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 ⑤__ 다양한 작품을 실제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 ⑥__ 기타()

15. 조형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___ 현대미술에서는 입체조형과 평면조형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미술 수요자 교육의 측면
- ②___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는 세대에게 손으로 여러 가지 물성을 체험하는 직접적인 촉감의 경험
- ③___ 3차원 혹은 4차원적인 입체의 제작 감상을 하는 복합적인 지능 발달을 꾀하는 측면
- ④___ 회화작업 등에 비해 많은 아이들이 쉽게 완성의 쾌감을 얻고,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적 측면

*다음은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미술교과전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___ 미술전담교사가 있으면 좋다(17-1로)
- ②___ 미술전담교사가 없어도 좋다(17-2로)

17-1. 어떤 이유에서 미술전담교사가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 ①___ 전담교사가 있다면 실기지도기술 및 재료다루기에 능숙할 것이므로
- ②___ 학년별 단계성과 통합성을 고려해본다면 전담교사의 지도가 더 효과적이므로
- ③___ 미술교육의 이론적인 측면과 교수방법을 연구하여 지도할 수 있으므로
- ④___ 참고 작품 등의 체계적 관리와 수집이 용이하므로
- ⑤___ 수업에 필요한 자료와 재료, 도구 등 수업준비가 용이하므로
- ⑥___ 기타()

17-2 미술전담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__ 미술수업은 기술적인 면보다 감성적·인성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는 수업이므로
- ②__ 미술수업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 ③__ 담임교사가 아동들 자유로운 발상을 유도하기 용이하므로
- ④__ 다른 과목에 비해 교사의 시간적·능력적 부담이 적은 수업이므로
- ⑤__ 미술교과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많은 경우가 많으므로
- ⑥__ 기타()

18. 현장에서 미술수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두 가지까지 표시하여주십시오.?

- ①__ 임용전 다양한 미술실기 교육(대학에서의 미술 기 교육 강화)
- ②__ 실임용후 교사 실기연수(과학실험연수와 같이 실기연수의 강화)
- ③__ 미술실 및 미술 실기 도구의 확충
- ④__ 미술전담교사의 확보
- ⑤__ 참고자료의 다양화(교사용지도서외의 교사 참고 및 지도자료)
- ⑥__ 검인정교과서로의 전환(일본등지의 경우에는 검인정사용)
- ⑦__ 기타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